

금주의 기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제자 삼는 일에 생명이 아까지 없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 1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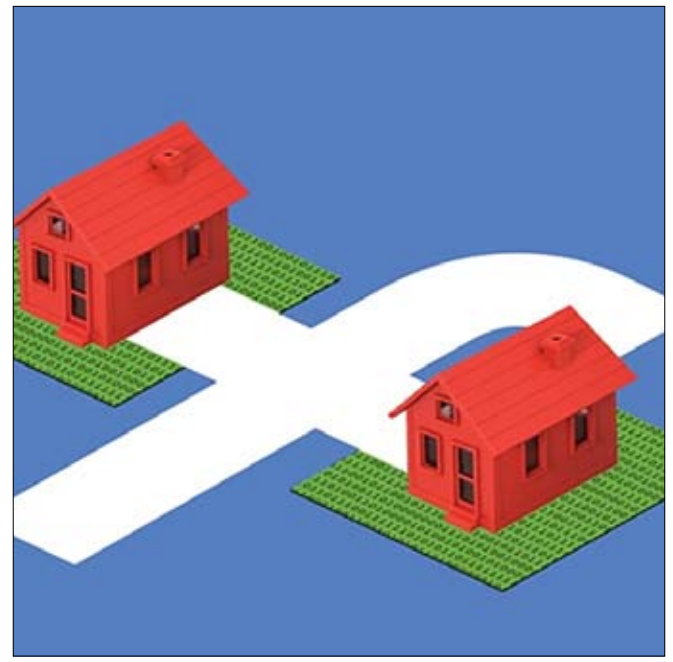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CT, 에든버러대학 제임스 이글린턴 교수, 이 시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 제시

19세기를 낙관주의 시대로 보고 20세기를 전쟁과 평화의 시대로 본다면 21세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엇보다도 사회가 심각하고 극명하게 분열된 것을 그 특징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서구 세계의 어느 (이념적) 거리 모퉁이에 가더라도 팽팽한 대립을 목격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 대(vs) 대중주의자, 밀레니엄 세대 대(vs) 베이비 불 세대, 종교인 대(vs) 비종교인, 보수주의자 대(vs) 자유주의자, 세계주의자 대(vs) 애국주의자 등등. 분열이 우리 시대의 전유물은 물론 아니다. 인간은 항상 경쟁하는 이념들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 다만 우리 시대 분열의 특징은 이러한 차이들을 다루기 위해 기대는 정치적 담론에 있다.
 오늘날 대중 민주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게임으로

여겨진다. 이 게임의 선수들은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들이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정치를 두고 논하자면, 합의를 끌어낸다거나 타협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시대가 탈-진실(post-truth)정치의 시대로 변해버렸다고 종종 비판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똑같은 정치가 또한 탈-이웃(post-neighbor)정치가 돼버렸다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영국 에든버러대학 개혁신학 석좌교수(Meldrum Lecturer in Reformed Theology) 제임스 이글린턴(James Eglinton)은 양극화 시대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준다((Who Is My Digital Neighbor?: A Christian call to reject polarizing public discourse).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승리란 승리한 쪽이, 비록 그 승리가 근소한 표차의 승리라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독점하게 되고 그들의 논리와 애국심과 진보가 곧 ‘다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패배한 쪽은 곧 일종의 비국민(non-people)이 된다. 패배자들이 그들의 ‘소수’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 그들에게는 “애국심이 없는 불평불만분자”에서 “국민의 적”까지 다양한 낙인이 찍힌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때때로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저 존재하는 그런 문화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승리란 승리한 쪽이, 비록 그 승리가 근소한 표차의 승리라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독점하게 되고 그들의 논리와 애국심과 진보가 곧 ‘다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패배한 쪽은 곧 일종의 비국민(non-people)이 된다. 패배자들이 그들의 ‘소수’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 그들에게는 “애국심이 없는 불평불만분자”에서 “국민의 적”까지 다양한 낙인이 찍힌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때때로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저 존재하는 그런 문화다.

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두고 벌인 논쟁들 가령 민주정치나 군주정치나 귀족정치나 등은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불변의 배경이 되었다. 기독교의 유구한 (정치적) 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한 목소리로 모든 국가를 향해 권력자들은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는 사상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로마에서부터

터 칼뱅의 제네바와 현재의 워싱턴DC와 런던에 이르기 까지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언제나 정치적 신앙을 갖고 있다.
 오늘, 서구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심 없는 발전에서 가장 최신의 단계, 다수 지배를 두고 벌이는 경합으로서의 대중 민주주의를 상대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 게임은 다수의 입장을 “국민의 뜻”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다수의 지위(선거운도 사회학자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 게임 자체가 유권자에게 선택의 자유 즉 외부의 간섭 없는 투표, 곧 유권자의 독자적 입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리를 정말 달콤하게 만든다. 이때 유권자는 자신이 이기는 말에 돈을 걸었다는 희열을 느낀다.
 (3면으로 계속)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리더십저널, 라이언 로크스모가 전하는 바울과 디도 통한 화해서약 소개

공동체 안에서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해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그 관계를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다. 또는 해를 입힌 사람을 근본적으로 악독한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우리는 때때로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12:18)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기 위해서나, 책임을 회피하고 상처를 준 사람과의 단절의 가책에서 자유하기 위해 사용한다.
 휴스턴의 리얼호프커뮤니티교회(Real Hope Community Church)에서 사역하는 라이언 로크스모(RYAN LOKKESMOE) 목사는 바울과 그의 팀의 다양한 에피소드 즉 “분열과 화해”를 한마디로 “팀메이트” 관점에서 정리한다(Paul and His Team: What the Early Church Can Teach Us About Leadership and Influence).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화해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세상, 심지어 원수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화해를 이룰 자로 부름 받았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다.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투박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화해 이해 그룹/개인 간 갈등 앞에 있는 화해의 중재자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린도교회를 깊이 염려하며 고린도후서를 썼다. 그는 불안, 사랑, 상처 및 기쁨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으로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우중과 영차유 이영희 목사 13면	 양극화 현상은 감정 치유전 집단적 사고 16면
--	---	--

ATS와 ABHE 공인된 최고의 온라인 학교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i.edu | (714)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35주년
 1984-2019
 하나님과 함께
감사축제
 좋은마을교회(구, 삼성장로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가운데 교회사역 35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5주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은교우들과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 떠난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서로 마음을 열고 섬기는 교회에서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잠시라도 나누길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진심을 담아 뜨거운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인
 신원규 목사, 김동진 장로, 전병일 장로, 황도성 장로, 김수성 장로, 김이집 장로, 선계원 장로, 조관국 장로, 이봉중 장로, 한기승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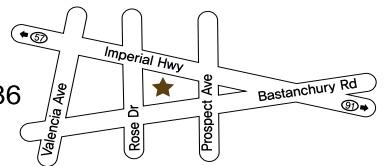
1 창립 35주년 기념 축하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장소: 좋은마을교회
 특별간증: Harold Potter 변호사 / Peter Travis 집사
 (무릎 아래가 없고 로봇다리로 장애를 이기고 선교로 삶을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2 H.K.W. (국제고아후원) 8년차 이사회 대회
 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좋은마을교회

3 G.M.G (영성사역후원) 28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4 P.H. (3세계현직목회자후원) 7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좋은마을교회
 The Good Village Church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문의전화 (714) 646 - 9259



● 발행인 칼럼 ●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김성국 목사
(켄츠장로교회 담임)

세상엔 두 가지 일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세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힘껏 부추기고 있다. 버킷 리스트(Bucket list)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 영화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주인공들이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세계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아프리카, 인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찾아가기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는 이야기가 의미 있고 재미있게 펼쳐졌다.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아픈 것은 빼고 저런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 주인공들을 은근(隱慫) 부러워하기도 했다.

며칠 전 장례식에 다녀왔다. 드넓은 땅에 묻힌 자들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웠다. 몇몇 묘비에서 그들이 살다간 년수(年數)를 눈에겨보았다. 장수(長壽)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저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떠났는가. 대부분이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을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 그 날이 언제인지 스스로는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 순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 예수님을 역을 맡은 사람은 제임스 카비즐(James Caviezel)이다. 그 이름의 이니셜이 예수님처럼 JC이다. 그가 그 영화를 촬영할 때 나이가 예수님이 죽으시던 나이인 33세였고 예수님처럼 목수의 일도 하곤 하였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궤(軌)를 같이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고기도 자기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추구해야 옳지 않겠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른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사명을 운운(云云) 할 수 없다.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기도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내가 스스로없이 주께 아뢰기를,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님의 일을 확장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되신 영향력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요, 나의 일과 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니 하나님은 잘 도와주시지만 하면 된다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저 청교도의 기도처럼 이제는 갯세마네 예수님 기도가 내 가슴에 담기고 내 입술에 적셔져야 하겠다.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디지털 세대에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경험하게 하라!

처지리더스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의 “‘피지털’ 시대의 목회전략” 소개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새롭고 중요한 단어가 있다. “피지털(Phygital)”이다. 물질세계와 디지털을 합성한 말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VR 영상을 시청할 때 신체 활동도 같이 하게 되는 콘텐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육체적인 것과 디지털 사이에 막힘없는 흐름의 필요성이 증대됨을 반영한다. 비즈커뮤니티(Bizcommunity)에 소매 단위판매(retail)의 세계와 관련해 한 기사가 있다 (Phygital: The new retail marketing playground): “벽돌과 시멘트(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비유하는 표현)와 디지털이 막힘 없이 통합되는 혁신적인 피지털 사업모델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피지털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은 여전히 고전적인 영업 전략과 맞물려있다. 고객의 유인, 유지, 참여, 경험, 충성과 브랜드 그 자체다. 이러한 요소들이 구매 활동과 새로운 기술을 계속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리테일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피지털은 가야할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적응이나 아니면 죽음이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있는 맥클린버그커뮤니티교회의 개척자이자 담임목사이며, 고든-콘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문화 교수로 재직했고 4대 총장으로 섬겼던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는 “피지털”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죽거나”가 적용되는 6가지 방법(Phygital: 6 ways to adapt, or die)을 말해준다(The Future of the Church is Phygital).

1. 애자일 매장(The agile store)

실재하는 가게의 역할의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가게의 출입구가 구매자의 심리에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현실 매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젊은 고객들이 있다.

뒤발유니온컨설팅의 닐스 반 댐(Nils Van Dam of Duval Union Consulting)은 앞으로



디지털적 현존이 교회 현관문, 실제 경험과 매끄럽게 통합돼야 디지털 경험이 줄 수 없는 물리적인 교회 공동체 체험 알도록

10년 안에 3.40%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Retail business model)의 붕괴

피지털 스토어가 생기면서 등장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업체는 아마존(Amazon)과 알리바바(Alibaba)이다. 이 메가-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현실세계 매장의 새 토대를 쌓고 있다. 아마존의 홀푸드(Wholefoods)와 알리바바의 헤마(Hema) 슈퍼마켓이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것이다: 무엇이든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뤄라.

붕괴에 대해서 특기할만한 또 다른 것은, 민첩성과 적응성은 당신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PWC(영국 런던에 위치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에 의하면 패션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43%의 고객이 이미 자신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 모두에서 구입하는 다채널 구매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

3.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타법을 구사하라.

놀랍게도,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물리적인 가게가 있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Z세대 때문

이다. 그들이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옵션을 원하기 때문이다.

뉴스룸 싱크로니(Newsroom Synchrony)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의 75%가 경험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45%는 상품 그 자체보다 무엇인가를 산다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Z세대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만약 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게에서 쇼핑했던 경험과 이것이 매끄럽게 통합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4. 모든 기초를 커버하라.

신호들, 매장 내 관계적인 디지털 아바타들, 쇼핑객의 성과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얼굴인식 프로그램들,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갖춘 쌍방향 피팅룸 같은 것이다.

5. 최고의 경험들

현실세계의 가게들은 새로운 유행은 무엇이든지 포함해야 한다. 요리강좌나 운동 같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 인터토포의 소유자인 그린 스완(Green Swan, the owners of Intertoys)은 어린이들의 파티에 장난감을 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고의 매장 내 트랜드를 보려면 185년 전통의 “가장 아름다운 백화점 매장”인 취리히의 젤몰리(Jelmoli)를 보면 된다. 이 고전적인 현실세계의 리테일러는 10개의 크고 작은 식당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식당들은 스테이크를 800도에서 90초간 구워줄 수 있다.

6. 사람의 역할

현실세계를 활용해 마치 인간과 실제처럼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

쇼핑객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바로 상점에 가는 것을 추억할만한 가족의 경험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골목의 작은 가게나 시골 등 서쪽 편지 못하는 가게 들에서 쇼핑을 해보기도 한다. 양 쪽 모두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가 쇼핑 경험에 중요하다. (11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는 아름다운 해변도시 산타바바라의 여러 대학캠퍼스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신앙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랑으로 목양하며, 지역사회 선교와 차세대 목회에 비전이 있으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
 -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
 - 정규대학과 본 교단(KAPC)이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으로, 현재 본 교단 소속이거나 혹은 본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 한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 가능한 분
 - 영어 설교 가능한 분 우대

- 1차 제출서류**
- 한/영 이력서(추천인 2인의 직분 및 연락처 포함)
 - 자기소개서 2쪽 이내
 - 목회계획서 2쪽 이내
 - 최근 설교 2회에 대한 원고 및 음성 혹은 동영상 (신약과 구약 각 1 편씩)
 - 사모 자기소개서
 - 가능하신 분에 한하여 영어 설교 음성 혹은 동영상 1편
 - 제출 기한: 2019년 9월 21일까지

- 2차 제출서류**
- 신학대학원 학력증명서 각 1부
 - 목사안수증명서 1부
 - 추천서 2부
 - 사역하시는 교회의 최근 1개월 간의 주보

* 접수 및 문의는 e-mail 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 제출처: sbkpc2019@gmail.com
- 설교 음성 및 동영상은 homepage link, Dropbox, iCloud, Google Drive 등을 통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4595 Hollister Avenue, Santabarbara, CA 93110
www.sbkpc.org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눈에!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중언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회(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후 해당 리스트팅 내에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5) 리스트팅 접수 마감 2019년 8월 31일 / 광고 접수 마감 2019년 7월 31일

종류	구분	가격
전면판권	3.5cm x 4.5cm	\$600.00
	17cm x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판권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800.00
캘리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15.5cm x 5.8cm \$350.00
	7.7cm x 11.7cm	
전면 1/8	15.5 x 2.8cm	\$250.00
	7.7cm x 5.8cm	
тол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k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1면에서 계속)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빅 데이터 기업과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를 집어삼킨 작년에 벌어진 스캔들이 정치 담론의 이러한 승자와 패자 낙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렸다. 수백만 페이스북 유저들의 개인정보가 그들의 동의 없이 수집됐고, 짐작컨대 그들을 조사하고 분류하기 위해 이용됐다.

더 나아가, 우리의 뉴스 피드를 맞춤형 이념 에코룸으로 바꿔 놓았다. 결국, 우려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조작한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우리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 확신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고통스

런 자각을 하게 됐다. 매우 음침한 어떤 실체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국민의 뜻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산산이 깨졌다. 온라인

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우리에게 관한 상상불가의 정보량을 축적한 다음, 돈을 대

주는 쪽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해 우리를 감언이설로 속이는 음흉한 빅 데이터 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듣고 살아온 자유의 내러티브, ‘우리는 경주의 주체(players)이다’는 전복됐다: 우리는 경주의 대상(being played)으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직접적이고 어려운 질문은 “페이스북을 지워 버려야 하나?”이다. 실제 세계에서만큼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세대, 소셜 미디어 원주민들(social media natives)에게 이것은 확실히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위기다. (4면으로 계속)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면에서 계속)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2:1-4).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교회를 방문했고, 이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확증하기 위해 눈물 어린 편지를 썼다. 고린도후서를 읽는 것은 얼마동안 계속돼온 집안싸움의 고통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지위를 변호하는 한편(고전10-11장), 화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

바울은 이 고통스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동료인 디도를 의지하며, 여러 갈등 상황에 놓인 고린도교회에 디도를 보내 고린도후서에 언급된 눈물 어린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울은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났고, 그의 눈물 어린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의 반응을 알게 됐다. 바울은 거의 행복감에 도취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오도록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후7:6-9).



이 구절은 바울이 얼마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디도를 만나고 자신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알게 됐을 때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소통수단인 편지를 사용해 고린도교회에 대한 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바울은 화해에 있어 단호하다. 그는 그저 화해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았고, 그것을 막연히 희망하지 않았다. 그는 화해를 이루기 위해 직접 일했다.

화해는 기독교적 영향력의 특징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하는 방법에서 아름다운 모

범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화해는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라는 결정적인 행동이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다루는 방법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며, 바울과 디도는 화해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화해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마음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디도처럼 그룹 또는 개인 간의 갈등 앞에서 있는 화해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많은 갈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서투르게 표현하고, 또한 화해를 원하는 상대방은 그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 그래서 그곳에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디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그 갈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화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에서 베테랑 약마인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이자 수습 약마인 웬우드에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전심으로 그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한다. ‘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보거라. 그건 고작해야 네 환자의 영혼에 약간의 자비와 약간의 약의 만 붙여놓을 뿐이란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 약의를 갖게 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갖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약의는 완전히 현실이 되고 자비는 허공을 떠도는 가상의 것이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어렵고, 먼 곳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짚고 있다.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고통스러운 딜레마 속에서도 화해를 진실한 화해를 실천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시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6월, 200만명이 넘는 홍콩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범죄인 인도 법안’때문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관련 개정법안은 홍콩이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도 용의자를 쉽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정법안에 의하면 홍콩시민이건 아닌건 관계없이 심지어 비행기 환승객이라고 하더라도 요청한 국가에 넘겨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콩시민들이 중국 본토로 인계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이 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며 전체 인구 744만명 중 30%에 가까운 2백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콩의 걸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그 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중국 본토에 대한 불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부동산의 급등입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의 부동산은 살인적으로 올랐습니다. 20평(720제곱피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무려 2백만불(20억)을 넘김으로써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49.4로 49년 봉급을 모아야 겨우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홍콩의 PIR 수치가 한국의 20.7, 뉴욕의 11, 필라델피아의 3.8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집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홍콩의 부동산이 오르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중국부자들의 검은 돈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반중국적인 정서가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를 있습니다. 홍콩대학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을 홍콩시민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중국인으로 여기는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직후 홍콩시민들의 ‘자신을 홍콩시민으로 생각한다’는 편이 36:19로 더 높게 나오다가 2008년에 들어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자신을 홍콩시민이 아닌 중국인으로 생각한다’는 쪽이 38:19로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이후 걱정보다는 좋아 하는 상태로 발전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조금씩 홍콩을 향해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콩시민들 속에 반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시민으로 여긴다’는 수치가 2011년 이후 현격하게 높아졌습니다. 2018년 통계는 41:18로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시민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 30세 미만의 홍콩인들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중국인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상대의 정당한 필요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의 필요를 인정해주고 그 필요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의 구원마저 칼을 들고 협박을 통해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의 자세로 국민들을 인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thechoi82@yahoo.com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PC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주일 두 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온 교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1. PCA 소속이거나 가입에 적합하신 분
2. 정규 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본 교회 소정양식) 및 가족사진
2. 최근 설교 2편 (음성/영상 파일 혹은 웹 주소)
3.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력서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kucp.org/pastorinvitation>

제출 및 문의처

이메일(PREFERRED): PulpitCommittee@kucp.org
우편 주소: Pulpit Committee KUCP
PO Box 7109
Elkins Park, PA 19027

제출마감: 10/20/2019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성경 박물관을 다녀와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여를 수 양회 행사로 워싱턴DC에 있는 성경박물관(Museum of Bible)을 탐방하였다. 박물관은 DC 중앙의 연방 의사당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2년 전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의 건물로써 43만Sqft의 건물을 약 5만명의 기부자들

의 성금 5억 달러로 세웠다고 한다. 가장 큰 기부자는 주일에도 문을 닫는 대형 공예품 회사인 하비 라비(Hobby Lobby)의 스티브 그린 회장이 기부했다고 한다.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서도 6만 달러의 성금을 출연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성경박물관답게

정문 입구 양쪽에 거대한 라틴어로 창세기 1장 전문을 대형 기념탑처럼 디자인하여 배치한 감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들은 하루 전날 가까운 호텔에서 묵고 아침 9시에 성경박물관에 입장을 했다. 성경이 미친 영향력을 전시한 2층부터 관람하였다. 성경이 세계적으로 각 나라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들, 특히 미국의 정치와 문화, 음악과 심지어 패션에까지 성경이 미친 영향력을 섬세하게 폭 넓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3층에는 구약과 신약성경이 기록된 과정들을 연대별과 역사와 당시의 문화 배경을 재현해서 전시되어 있었다. 초창기 성경 기록인 토판 조각들로 전시되어 있었고 신약관에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마을의 당시 풍경을 실물로 배치하여 놓았다. 거대한 올리브 나무들과 초라한 집들 당시에 사용하던

그릇들과 향아리, 농기구들... 소담한 집안 풍경, 각종 과일들로 채워진 농가 속에 당시의 복장으로 꾸민 한 여인이 바구니에 뜨개질을 하면서 실감을 더하고 있었다. 물론 이 전시관도 12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다. 4층엔 성경의 역사관으로 12분짜리 영상제작물을 통해서... 또한 6백 여점의 각종 유적물들을 보충자료로 전시하면서 성경의 초창기 시대와 손으로 기록 전수되었던 성경들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온 과정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온 역사를 그림들과 당시의 자료들을 전시함으로 이해를 돕고 있었다. 특히 라틴어를 영어성경으로 번역하도록 했던 제임스왕제의 성경과 유명한 마틴 루터가 소장했던 성경 등 희귀한

보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주제들을 돕기 위해서 10여분짜리 영상물 들과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전산화 시설들이 현대 감각을 더하고 있었다. 특별히 인상적인 대목은 1440년대 인쇄술을 발명한 쿠벤베르그의 대량 성경 인쇄 과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치된 인쇄소와 활자들을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곳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5층에는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무료로 공연된 바이블 뮤지컬을 감상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대신 6층의 만나식당의 즐거운 먹거리와 푸짐한 음식을 채울 수 있어서 즐거움이 더해졌다.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1층과 지하층을 관람했는데 특이한 시설은 1층에 마련된 어

린이들을 위한 성경테마 체험관이였다. 이 방은 신나는 놀이게임들을 즐기면서 어린이들이 성경에 쉽게 접근하도록 꾸며진 방이었다. 이 방은 어린이아이들 대신에 다른 어른들이 신나게 게임들을 하면서 관람 마지막을 장식했다. 44,000권의 각종 희귀한 성경들을 살피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9일이 소요된다는 성경 박물관을 우리 일행은 단 6시간 만에 완주해 버렸다. 속전속결로 성경박물관을 관람한 결론을 이야기 하라고 한다면, 구약성경관에 비해서 신약성경관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모든 성경의 완성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에 서치라이프를 비추는 것이 없었던 결론적인 아쉬움을 안고 우리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샬롯장로교회)



제목의 말은 늦게 깨달은 진리나 당연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오늘의 사실을 예견이라도 하 듯이 미드웨스턴신학교(Midwestern Seminary) 교회 개혁센터 담당 디렉터인 Joshua Hedger 교수는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Church Revitalization(교회부흥)을 경험하여야함을 여러해 전에 설교하였다. 지금 미국에서 일년에 4000개씩 교회 문을 닫는 참으로 어려운 때에 그 유명한 미남침례교단에서도 일년에 800-1,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때에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교회가 반드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변화는 '교회의 Discipline'(절제를 포함한 훈련), 'Spiritual Health' 그리고 'Youth를 향한 활짝 열린 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는 반드시 변화야 하고 그 중요한 실제적인 예를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역보다 더 좋은 예는 있을 수가 없다.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무서우리만큼 민족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여 버렸다. 심지어 동족이라도 로마에 야부하여 자기들의 사역에 역행하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죽이 버릴 만큼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자기들 곧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박에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하고 다시 한 번 다윗왕국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즐기차게 기다렸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과연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었고 예시님 자

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렇지 무언가 다른 분이시잖아? 다시 열심히 따라가 보았으나 종래 그분의 비전은 자기들과 너무도 다른 어떤 것이었다. 본문 7, 8절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처럼 유대를 독립시키는 메시아로 만족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온 세상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생 각만 하여도 아찔하지 않을 수

들과 이웃나라에 얼마나 기쁨과 행복 을 가져왔는가?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만든 철저한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통하여 인류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구원뿐만 아니라 참된 번영과 희망을 선사하여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인류 공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한 나라의 독립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다. 민족우월주의도 아니다. 이 시문은 오직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환경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감사와 만족으로 살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특별히 성경에서 임해서 구원의 감격을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셨기에 그는 자신의 움직일 수 없는 비전, 소신, 일생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기수가 되어 소아시아로 북 아프리카로 흑해 연안으로 심지어 영국으로 마지막에는 페르시아로 올라가 복음만 전하다가 반대하는 폭도들에 붙들려 톱으로 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달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삼년 반 동안 힘쓰고 애쓰신 바이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가 갖는 아픔을 하늘의 가르침으로 승화시키셨음에 틀림이 없다.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 마태와 시몬을 가슴에 안고 비유컨대 무릎에 앉히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픈 유혹도 느낄 수 있었겠으나 이미 성자 하나님의 삶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고 그 권위에 놀리기도 하여 목욕하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의 격정적인 성격이 변하여 성숙을 이루어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새 역사를 쓰게 된 제자 열심당원 시몬, 새로 거듭난 그 열심으로 누구 못지않은 전도의 쾌거를 이루었던 그를 통하여 보여준 진정한 모범을 따라서 이 시대의 잠된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열두 제자를 강해하며 느낀 결론은 참고 또 참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코 지지치 않는 리더십, 그것이 예

시시키는 것이었다. 겐디다 못한 그 수도사가 어느 날 짐을 꾸려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다. 남은 수도사들의 보기 좋은 승리였다. 대표 수도사가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않고 들고 갔던 원장님은 날을 잡아 수도원을 내려가시더니, 여러 날 후에 바로 그 사람을 대동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원장님을 따라 들어오는 그 수도사의 당당함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밤에 쫓아와 항의하는 대표 수도사들에게 원장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그를 수소문하여 어렵게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오지 않았다고 하여 많은 월급을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이상가지고 있는, 그래서 꼭 고쳐야 하는 약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권위에 눌려서도 그 자리를 나왔으나 그 깊은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수도사들은 이른 날부터 자세를 바꾸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고쳐야 한다. 고맙게까지 느끼게 된 그 동료 수도사들의 달라진 태도에 정작 놀란 것은 문제가 수도사 자신이었다. 과거와 달리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겸손하며 약점을 함께 지려는 피나는 노력에 그만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 이 문제가 수도사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반성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 문제는 나에게, 나부터 작은 예수! 오늘의 교회를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고귀하신 구속의 사랑을 본받아 내 뜻, 내 주장, 내가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가치관,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비전.. 그것까지라도 복음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예수님적 성숙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의 우리 교회들의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새 역사를 일으키며 이 시대의 분명한 해답을 교회가 제공함으로 Church Revitalization을 확실히 이루고도 남을 것이다. revskma@gmail.com

아, 이게 그거구나!

사도행전 1장 6-8절

본문 6절은 예수님께 드린 가나안인 시몬의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열두 제자 가운데 왜 열심당원 시몬이라 하였을까?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열두 제자 이름을 네 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는 중에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네 사람은 다 열심당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인 시몬 곧 셀롯인 시몬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계속 열심당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에게 있어서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민족 독립이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 집체의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신도 메시아이심을 천명하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역은 갈수록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대단한 기대를 모으게 하고 군중을 사로잡으며, 그들의 가난과 압박과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며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과시하였으나 점점 더 진행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앞길을 종잡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의 말씀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 무력하게 죽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 그와 주위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실망과 무력감... 이 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

가 없다. 셀롯인 시몬이 그토록 열망하며 기대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기대하였던 대로만 메시아의 사역이 끝이 났다면, 여전히 다윗왕 때처럼 주위 나라는 압제와 멸시 그리고 철저한 소외감과 천대에 시달리며 구원과는 먼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겠으나 예수님의 순수하고 진실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며 이루어 주신 인류 구원,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얻어 자신이 또 가정이 이웃 자역사회와 민족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온 인류가 완전한 새 삶을 살고 참된 구원 참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세기에 독립을 이룬 많은 나라들이 자신

지난 세기에 자국들의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구가하며 자기들만 즐기던 것과는 달리 셀롯인 시몬만 아니고 콜럼버스와 어거스틴 선교사 등 불과 너댓 명 복음의 기수들로 인하여 마침내 복음화 된 영국을 통하여 지난 한 세기에 세계 인류가 누리던 축복을 생각하여 보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복음화하며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던, 그리고 그렇게 크게 영적 감화를 세계적으로 끼치던 영국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더 크고 위대한 가치관으로의 변화는 백 번 나타나도 오히려 부족할 뿐이다.

수님의 리더십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며 "아 이게 그거구나!" 하게 된다. 이 리더십이 다시 힘 있게 살아날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게 될 것이다. 어느 수도원의 예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 어느 수도원에 문제투성이 수도사가 들어왔다. 결핍하면 싸우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핑계하고 게으르고 도무지 그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는 수도원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이 전개되었다. 이때 모든 수도사가 한 가지 지혜를 짜내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대꾸하거나 상대하지 않는 것이었다. 철저히 무시하고 소

2. 예수님적인 성숙 참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3면에서 계속) 사례 깊은 크리스천의 반응은 이 질문을 확장해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이끈 공공 담론의 종류, 우리의 승자독식 대중 민주주의

스타일까지 검토해야 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파들의 관계를 다수 획득(majority dominance)을 위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경쟁으로 쉽게 바뀌어 가는 우리 시대의 성향이 막강하고 비도덕적인 빅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기 위해 모든 가용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제로섬 현실이 정치 지도자들을 부추겨 자신의 의지를 "국민의 의지"로 바꾸기 위해 빅 데이터의 힘을 이용하게 한다. 성공회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

가 2016년에 처음 발표하고 2017년에 더욱 발전시킨 주장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현대 미국 대중영합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고 브래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영국 정치에 초점을 맞춰

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 유권자의 51.9%가 유럽연합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탈블로이드 신문들의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잔류파 정치인들은 비애국적 인사, 반민

주적 인사,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적"으로 조롱 받았다. 이러한 창피주기 현상을 비판하면서 윌리엄스는 오늘의 정치가 어떻게 우리를 선통해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우리가 패배시켜야 하는 사람들로 보게 만드는지 지적했다. (5면으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배를 매개체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치, 숨 쉬는 것을 한 번에 몰아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중심, 인생의 목적

예배란 공식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목소리

이 빠져 버린 신앙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삶의 회복과 생활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온전함에는 삶의 예배가 따라와야 한다. 로마서 12장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배 외에 매일 매순간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로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목사는 설

결과이지 동구나 목적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성을 바쳐야 한다. 정성이 없으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곧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는 시간과 정성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기도와 찬송, 말씀과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꼭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

적인 존재이므로 예배를 드려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의 주체세력들이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들은 주일예배를 방해하고자 1주일을 10일로 바꾸었는데, 모든 산업생산량이 40% 감소하고 말았다. 러시아혁명 당시 레닌은 1주일을 8일로 바꾸었다. 그러자 생산량이 30% 감소했다. 당황한 나머지 반대로 1주일을 6일로 바꾸게 된다. 주일예배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도 생산량이 30% 감소하자 다시 7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고 한다.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생을 살린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안간사 제자들과교회)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

- 직분과 사명, 헌신과 섬김, 회복

높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배가 너무 많다는 비판을 한다.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일 예배 등을 나열한다. 아직도 옛날방식으로 묵회하나? 그러나 그런 비판의 시류와 상관없이 예배가 되었던 기도회가 되었던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는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배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교회와 가정,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자주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웃들과의 최고의 섬김과 교제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도 예배에 승리함으로 복을 받았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를 받은 흔적도 명백하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나라의 영적회복을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때 숙적 블레셋이 침략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부지기수이다.

예배의 실패로 인한 멸망도 정확하게 기록하신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며 본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사했다. 예배에 실패해서 멸망한 것이다. 가인과 사울왕도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 마음

교한 대로 살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외에 있는 곳곳에서 맡은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반 주의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마르틴 루터는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의 젖을 짜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신과 섬김이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것은 예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몰라서 그렇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살아 있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말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에도,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한다.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들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동일해야 한다. 예배 시간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분명한 승리의 간증들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맞선 대영제국은 승산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수상 윈스턴 처칠은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다. "국민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튿날 영국 전역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결국 대영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였다.

세상 모든 삶의 근원-예배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과 인생이 회복된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예배와 삶은 하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의 예배가 살아 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오직 한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한다, 사람은 영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이다. 삶의 회복을 원하는가? 세상의 변혁을 원하는가? 삶의 승리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는 삶을 원하는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거기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치라!

(4면에서 계속)

이런 정치와 달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웃으로 보라고 도전한다고 윌리엄스는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민주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정치 담론 스타일보다 더 건강한 정치 담론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소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낙태 지지와 안락사 지지 사회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의해 어떤 취급을 받는가?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여겨진다면, 공적 영역에서 그들의 얼굴이 배제된다면,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신념을 포기하라고 강요받았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허약하기 그지없다.

전통적 결혼, 생명의 권리, 또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소수의 신념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상대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에서 대개 오른 손잡이가 많은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상대방의 뺨을 후려갈기면 맞는 것은 왼편인데 예수님은 오른뺨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뭘 착각하지는 않은 말씀인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의미는 천국백성들이 감정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인격적인 모욕이나 모독을 당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참아 넘기는데, 인격적인 모독, 즉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참지 못하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착각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오른 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결국 왼뺨을 치는 것이 됩니다. 좋은 관찰이요 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등 뒤에서 때려야 오른 뺨을 칠 수 있습니다. 둘

인격적 모욕당해도 용서하라는 의미

째, 마주 보는 상황에서는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 뺨이 맞습니다. 셋째, 오른 손등으로 때려야 상대의 오른 뺨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는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왼손은 화장실에서 대변의 뒤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식사할 때는 오른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왼손으로 맞는 것은 '똥만도 못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오른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분노로 맞대응하지 말고 화가 치밀 때 신앙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저항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고 자기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천국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우리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더 큰 모독을 당하더라도 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다수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병든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차지해 "국민"이 되려고 경쟁하는 이러한 병든 민주주의는 소수 역시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성경과 문화를 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문화는 교회의 전통과 사회적 관습, 예술적 창조물의 혼합체일 뿐이다. 문화가 가질 수 있는 권위란 그것해야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것은 개혁 혹은 비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를 성경적인 잣대로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적 변화에 분노하거나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 진실하게 표현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세계를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양극화, 갈등을 불러일으켰기에, 양극화의 근본에는 죄에 의거한 '불의'의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의를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시편 103장 6절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 되신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장애인, 억눌린 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눅 4:16-19)이다. 그렇기에 차별과 갈등을 비롯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다. 특히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25-37)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쫓는 크리스천의 참된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이 고통 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바로 '이웃 된 삶'을 살 때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에 햇살이 비추게 된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당스 브힐(DANGS BHIL)

당스 브힐족은 인도 서부중양의 가파른 협곡의 수림 지역에서 살고 있다. 주겨주 지역으로는 구자라티주 당스 지방이다. 당기어는 부족의 고유어로서 이 지방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인도 아리안 계통의 언어로서 칸데쉬 부족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 지역을 통치했던 첫 번째 부족은 서부 차루카 부족이었



고 그 후에 라쉬트라쿠타 부족이 통치하면서 당스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브힐족을 지배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스족은 노예가 돼 수림지역의 개발에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평야지대의 다른 부족의 싸움에 피난처를 제공한 당스족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겨 내어쫓으로써 수년 동안 고립된 채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왔으나 1947년 농업개혁은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

삶의 모습

당스족은 오래 동안 극심한 가난과 부족한 생필품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수림지역에서 얻어지는 약간의 식량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적인 것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오로지 생계유지를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다. 매우 고된 삶과 거친 협곡에서의 변함없는 삶은 부족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갈망하게 했다. 오늘날 당스 브힐족의 삶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과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자연에 의존해 그 속에서 생존을 갈구하며 자연의 후손으로써 동물을 중시 여긴

다. 당스 지역의 울창한 산림 속에서 경작을 통해 생활하고 정착하면서 자연의 보호를 받는다. 대나무로 엮어진 오두막에는 초가지붕을 얹었는데 한 개의 방안에 온 가족이 모여 생활한다. 당스족의 사회는 가족, 종교 공동체이며 가부장제도 사회다. 신혼부부는 관습대로 신랑의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살림을 차린다. panch라고 알려진 사회, 종교지도자들의 명령은 사회 규범의 효력을 지닌다. 당스 지역의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그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풀로 엮은 치마를 걸친다. 매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춤과 노래를 즐겼으나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생

기가 넘치지 않는다. 당스족은 돌, 나무, 점토를 이용해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데 힌두교도들의 뛰어난 예술성에 버금간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예술적 행위 중 하나다. 신앙 당스족의 90% 이상이 원시 종교로서 모든 사람이 조상을 숭배한다. 그들의 삶은 미신과 제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나무, 동물, 악신, 뱀 등의 영혼을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섬긴다. wagh-dev는 부족이 두려움으로 섬기는 호랑이신으로서 마술과 악령, 그리고 힌두교의 수많은 다신숭배를 한다. 당스족은 선과 악은 모두 초

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믿고 미신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술적인 의식과 공물을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 "bhagat"는 당스족이 믿는 최고의 선한 인간상으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철학자이고 친구이며 지도자, 또는 치료사라고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당스족을 향한 두 가지 비전의 실천이 요구되는데 당스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선, 당기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하며 당스족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과 비전을 지닌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북음주의자유교회, 교리선언문에서 '전천년설' 빼

미국 북음주의자유교회(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America-EFCA) 총회가 최근 교단의 주요 교리를 담은 '신앙 선언'에서 '전천년설'이란 말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가 보도했다.



전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및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계20:1-6),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해다. 천년을 문자적인 1000년의 시간으로 간주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고 본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구분된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에는 이 외에도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다. 최근 신학계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우세하다.

EFCA는 그동안 전천년설이란 말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담은 '신앙 선언'에서 언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교단 투표를 통해 전천년설이 기독교 북음에서 핵심적 교리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미국 EFCA는 35만명의 신자 규모를 가지고 있다.

EFCA는 전천년설이 타교단과 구별되는 '교단적 정체성'의 하나로써 표시했으나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FCA 그레그 스트랜드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이상 전천년설을 유일한 종말론의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은 신자 개인적 차원에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CT는 전했다.

트리니티북음주의신학교 존 우드리지(역사신학) 교수는 "전천년설은 장 칼뱅과 마르틴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견지했던 성경적 관점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며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전천년설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FCA의 개정된 신앙선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영광스러운 몸의 재림을 믿는다"고만 돼있다.

캐나다 EFCA는 일찍부터 전천년설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빌 테일러 사무총장은 "미국교회는 그동안 강력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신봉해왔다"며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전천년설의 토대가 되는 알레고리컬(풍유적) 성경 해석이라는 미끄러운 비탈지대를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회연합 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 세계 오순절교단 지도자들이 북음의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향해 통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북음은 (자체) 소비가 아니라 (세계로) 확산돼야 하는 지상 최고의 가치"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은 신자는 안전지대가 아닌 전쟁터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교회 연합을 해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정치적 견해와 이데올로



기"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29일 캐나다 캘거리 티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오순절대회에서 나왔다. 전 세계 74개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오순절교단 대표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독교 북음은 어떤 이유든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오순절교단 지도자들은 또 오순절 신앙이 다음세대에게도 지속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를 위해 영적 지도자들의 완전성(integrity)을 위한 노력, 오순절주의 수호 등을 주문했다.

'거룩과 진실 - 기도와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 마홀로보(사도적민음신교남아공지부) 목사는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오늘날 오순절운동이 직면한 문제는 그 표현양식 자체가 아니라 본질에 있다"고 말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에서 시작한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 방언을 사용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성령강림과 교회의 시작, 선교의 출발이 오순절의 본질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가짜 군인'과 '진짜 군인'을 대비하며 설명했다.

"많은 신자들이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안전지대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안전지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능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진짜 군인으로서 말입니다. 진짜 군인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북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순절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그렇게 합시다."

토시 스와레즈(미국) 목사는 "대체할 수 없는 오순절운동의 7가지 영성과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오순절운동의 7가지 영성을 '성령의 능력' '희생' '고백' '회개' '기도' '초자연적 은사' '성령을 경험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모든 신자들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 람을 용서하는 노력,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자가 되려는 노력, 그리고 연합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와레즈 목사는 특히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교리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 이데올로기"라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북음의 정신보다 좌파나 우파 이데올로기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오순절운동은 이 모든 정치 견해와 이데올로기를 기도로 밀어내고 하나가 되도록 한다"며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데올로기도 성경의 정신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 선교 영역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 PWF 집행이사 추대

세계오순절협회(PWF)는 지난 27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를 PWF 중앙위원인 집행이사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집행이사는 6억 3000만명 신자를 보유한 PWF 전체 실무를 담

당하는 핵심적 위치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목사는 그동안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목사는 "세계 기독교는 세계북음주의 연맹(WEA)과 세계교회협의회(WCC), PWF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며 "그 중심에 PWF가 있다. 오순절교단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기독교 교단은 PWF 외에는 없다"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는 압도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 하나님의성회(Assembly of God)는 이미 미국내 주요 장로교단을 따라잡는 지 오래다. 320만명의 신자와 1만3000여개 교회가 소속돼있다. 여성 목회자 비율도 높아 24%를 차지한다.

한편 PWF는 차기 회장에 미국 오렐로버츠대 빌리 윌슨 총장을 선임했다. PWF는 차기 오순절세계대회 일정도 확정했다. 2022년(26회)은 인도 뉴델리, 2025년(27회)은 핀란드, 2028년(28회)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홍콩 학생들 동맹 휴학·직장인들 총파업

홍콩의 중고등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에 나섰다. 최근 홍콩 시위대의 연평균이 낮아지는 데다 중고등 학생들까지 본격 가세하면서 시위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 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2-3일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강경 진압의 수위를 높이자 반정부 진영이 확대되고 시위도 더욱 과격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2일 오전 시작된 홍콩 중고등학교의 동맹 휴학에 200여 개 학교에서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홍콩 섬 동쪽의 차이완 지역의 사우케이완 공립학교 등 3개 학교의 학생들은 오전 7시부터 학교 부근에서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었다. 상당수는 교복위에 홍콩 시위대의 상징이 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일부는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사우케이완 이스트 재학생인 야니스 호는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이 송환법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시위대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사우케이완 학생인 리처드는 "나는 개인적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우리 싸움의 진짜 상대는 중국 중앙정부가기 때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측은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지만, 누가 참여하는지 명단 파악은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 측이 수업거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삼수이포 지역 중등학교 외와서원에서는 50여 명의 학생이 집회를 열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3일부터 전면적인 동맹휴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홍콩 내 10개 대학 학생회도 신학기를 시작된 이날 홍콩중문대학 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고 2주간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들은 13일까지 정부가 송환법 완전철폐와 행정기관 직선제 등 5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동맹휴학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홍콩의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2-3일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홍콩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티티 지역의 타마르 공원에서 송환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동맹휴학에 들어간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홍콩 시위대는 전날에 이어 공항으로 통하는 길을 차단하고, 지하철 운영을 방해하기로 했으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주요 지하철역에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의 운행 방해를 사전 차단했다. 홍콩 시위대는 앞으로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불매운동'인 첸시(罷市) 등 '3파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시위가 결집을 수 없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무장 경찰을 선전에 배치하고 진압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홍콩에 무력 진압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포'에 그치고 있다. 주말 시위에 경찰의 '랩터' 특공대를 지휘할 객차까지 투입해 시위대를 체포했지만 아직까지 본토의 직접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중국 정부의 인내력이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10월 1일 신중국 건립 70주년 행사가 목전으로 다가오는데 있어 조만간 실제로 '행동 개시'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고,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10월 1일 이전에 홍콩에 무력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 또 '총기난사' 7명 사망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AP통신·CNN·폭스뉴스 등 북수의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의 미들랜드와 오데사에서 지난 31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애초 5명으로 집계됐으나 2명이 추가됐다. 부상자 19명 가운데 1명의 생명이 위태로워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총격범도 경찰과 교전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범인의 이름 등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리 모탈레스 미들랜드 시장은 사건 발생 시간이 미 중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쯤이라고 설명했다. 총격범은 미들랜드와 오데사를 연결하는 20번 주간(州間) 고속도로와 191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을 겨냥해 무차별 사격을 했다고 한다. 용의자는 차량 검문 차 자신의 차를 정차하게 한 경찰관을 쏜 뒤 달아났고, 그 이후 무차별 총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총이 사용됐다.

총격범은 범행 중간에 자신이 타던 차를 버린 뒤 미 연방우체국(USPS)의 우편배달 밴을 탈취했다. 이후 그 밴을 타고 돌아다니며 지역주민, 운전자, 쇼핑객 등을 향해 총을 쏘았다. 범행일인 8월 31일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이었으나,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경찰은 총격범을 극장 주차장으로 몰아넣은 뒤 교전을 벌였고, 결국 그를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 발생 후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산하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도 현장에 파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 글을 통해 "어제 끔찍한 비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텍사스 법 집행기관과 응급의료 요원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 FBI와 다른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며 "매우 힘들고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텍사스 서부 국경도시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1. 노준택(1887-?)

노준택은 1887년 9월 3일에 평안남도 평양 강흥면 5리에서 태어나 강서청년학교와 평양 숭실 중학을 거쳐 1919년에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그가 모교에서 서무원 겸 학감 조수로 다년간 시무하면서 동 대학의 발전에 막대하게 공헌하였다고도 하고, 교사와 교감의 직무를 띠고 다년 시무하였다고도 한다.

노준택은 연희전문대학 음악과를 졸업한 윤기성과 함께 미국 유학자선요 마루 선편으로 1924년 12월 12일에 상항에 입항하여 이튿날 대륙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상항을 떠났다. 노준택은 이듬해 불학기에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게렛성경학교였다. 그의 영어 이름은 아더(Arthur)였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김창준 목사가 게렛신학교를 졸업한 후 1926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의 교역자가 공석이 되어 노준택이 담임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평신도였으나 나이가 있고, 교회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적임자였다. 그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도 가르쳤다.

그해 12월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교회당을 사기로 하고 성탄절 축하식에 작은 연극을 준비하고 거의 600달러를 건축금으로 모금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러 인사의 많은 동정을 얻었고, 셋집이라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듬해 5월 8일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세인트폴 예배당에서 이사하여 레이크 파크 예배당 3901번지로 옮겼다. 이날 개당식을 거행하였다. 이 건물에는 예배실 뿐만 아니라 7, 8개의 침실이 있어 시카고에 거주하는 자와 이곳을 오가는 자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어 김일선의 부인 김현숙이 이 사무를 담당하였다.

시카고 지방회 최후로 1927년의 삼일절 기념식이 그해 3월 1일 하오 8시 30분에 시나 세인트폴 한인교회에서 있었다. 47명이 모인 가운데 노준

택의 지도로 시작됐다. 이후 일종의 애국가, 지방회장이 일의 개시사, 강영운의 독립선언서 낭독, 현재 명의 독창, 차의석의 추도문, 김일선의 연설, 홍영태의 반도가 독창, 천세현의 독립운동의 약력, 유 의의 간단한 연설, 강영소의 '3월 1일 작품', 일종의 국기 경례식 등으로 이어졌다. 폐회 후 만찬회가 있었다. 이 삼일절 기념식에 참여했던 47명의 대부분이 본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노준택 전도사

1926년 시카고한인감리교회 1년간 담임전도사로 시무

1928년 노스웨스턴대 교육학 학사논문 귀국 후 완성

3월에는 본 교회 유지이자 유학생이었던 염광섭과 중가주 스타튼의 문로라의 결혼식이 스타튼의 미국인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였던 롱 박사의 주례로 있었다. 6월에는 노스웨스턴대학생 홍영태의 여동생 홍제니가 시카고로 유학차 왔고, 경성 제중원 출신의 의사로 약 6년간 의학을 공부한 최영욱 박사와 그의 부인 김필레가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7월에는 라인인 병원 간호과에서 1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이봉순이 시카고를 떠나 회비가 잊갈렸다.

북미유학생회 취임식이 7월 28일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신임 행정원 임원으로 회장에 시카고 대학의 장세운, 부회장에 콜럼비아대학 장덕수, 총무에 시카고대학 오천석, 서기에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최경식과 박원규, 재무부장에 시카고대학의 김학수, 영입부장에 시카고 템플대학의 김 훈, 사교부장에 콜럼비아대학의 황창하, 체육부장에 프린스턴대

학의 윤치영, 편집부장에 시카고대학의 오천석, 종교부장에 시카고대학의 장세운, 대외기부금 전무 콜럼비아대학의 황창하이었다. 시카고대학과 서북대학의 학생은 모두 본 교회 교인이었다.

8월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노준택은 바빴다. 시카고 등지에서 다년 거류하던 한인성이 신병으로 이 세상길을 영영 하직하였으니 노준택이 장례식을 주관했을 것이다. 그달에 최 린과 이정섭 등 두 선생이 시카고를 방문하고 시카고 동포 80여 명이 모여 만찬회를 가졌다. 최 린은 영토, 인민, 주권의 삼대 요소 중 주권만 잃었을 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역설하며 희망을 주었다. 그날 이정섭은 우리 독립에 대한 준비와 신념과 내지 사회의 각 방면 운동과 사상 주의의 경향을 말했다.

오하이오 웨슬레이안대학에서 공부하던 심재홍이 하기 휴학에 시카고에 와 본 교회에서 기숙하였는데 그의 모토 사이클과 어떤 자동차와 충돌하여 그의 바쁜편 다리가 골절되어 치료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리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에서 물리학 교사로 활동하던 데이빗 L. 솔도 선교사와 본 교의 음악 교사이자 그의 아내인 그레이스 Z. 솔도 선교사가 본 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우리를 여기서 만나보게 된 것이 매우 반갑다'는 간단한 말씀을 하였고, 부인은 청아한 음성으로 한국어 찬송가 1장을 불렀다. 그들은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연구과에서 공부하고 진족을 방문차로 서북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성취하려고 한번 다시 정다운 친구를 섭섭히 이별하고 각각 자기의 학교로 돌아가는 데 어떤 자는 외로이 아직 노동하느라고 장래의 계획을 취득하노라고 육신상 심리상 괴로움을 느끼어 자연히 발생하는 무한한 감상을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통정을 하여볼까, 친한 친구가 있으니 만장 설임을 하여볼까? 할 수 없다. 다만 마음을 억제하며 하늘을 우러러 장탄할 뿐이로다.

만사가 꿈과 같은가? 모든 일이 꿈과 같으면 참 좋으리리다. 꿈에 본 좋은 일은 평시에도 좋은 인상을 주고, 꿈에 본 불길한 일은 평시에는 잊어버리게 된다. 꿈에는 이상적 친구를 만나 서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되 평시에는 동정의 친우를 얻기 어렵다. 꿈에는 찬성과 동정을 하기도 하며 받기도 할 수 있되 평시에는 시비, 시기, 비평이 자자하다.

꿈에는 믿고, 참된 마음과 참된 정성으로 공평적 사업을 도모하되 평시에는 의심하며, 거짓 하며, 파하며, 사특하며, 이기적인 행동이 다대하다. 꿈에는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되 평시에는 주위와 환경을 쫓아 작일에 친구가 금일에는 냉방한 심기에 뜨거우 열정이 서늘하게 된다. 꿈에는 무식한 듯하고도 이해하며 외면하면서도 은근히 동정을 표되 평시에는 민첩한 듯하고도 오해하며 친한 듯하고도 사심(배아의 마음)을 두도다.

꿈에는 극락한 세상의 취미를 맛볼 수 있되 평시에는 고해 같은 이 세상에서 전투하기에 내력 할 뿐이로다. 꿈에는 희망과 성공의 문이 명백히

해하며 서로 과실을 용서하며 서로 믿고 서로 힘을 다하여 물에도 같이 들어가며 불에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동포의 정의와 의무가 아닌가. 우리의 앞길이 지극히 험하고 위태하다. 우리는 백절불요하는 정신으로 의리를 품고 용감력을 발하여 주자로 노심초사하며 천신만고를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 전진하여 우리의 공동한 목적지를 달한 후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여봅시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시카고대학 학생회와 노스웨스턴대학교 학생회가 연합하여 추수감사절 축하회를 준비하던 중 1927년 11월에도 두 학생회의 수교로 "오랫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 이날 운동회와 만찬회와 유희회가 있었다. 이날 만찬회는 교인이 경영하는 하워드 카페테리아에서 개최하였다. 일반 교우들이 한국의 빛으로 꾸며놓은 식장으로 들어오면서 정감 있고 힘 있는 악수를 나누었다. 정감이 되어 노준택 전도사의 사회로 장세운이 기도한 후 만찬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교인이 맛있는 만도국과 고소한 산적, 구미 돋는 김치 등 여러 가지 진찬을 나누었다.

1927년 12월 2일 김창준 목사에 이어 함승곤 목사가 시카고에 도착했고 그날 8시에 본 예배당에서 그들을 위한 환영회가 있었다. 이 환영회의 마지막 순서인 기도순서에 노준택 전도사가 경건하게 기도하였다. 한 목사의 부임 전까지 노준택 전도사가 목회하였으니 1년간이다. 김창준 목사가 그의 글에서 "그들이 '김창준 목사, 노준택 전도사, 함승곤 목사' 없는 오늘에도 저들의 말을 하는 교우가 종종한 즉 참으로 부럽다"고 회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노준택의 목회는 성공한 셈이다.

귀국

노준택은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졸업 논문만 남겨 놓은 채 건강이 좋지 않아 귀국길에 들어섰다. 1928년 11월에 김일선의 집에 모여 전별 만찬회를 가진 후 시카고를 떠나 나성을 거쳐 상항에 도착한 그는 상항 한인교회 황사선 목사와 국민회 총회장 백일규의 초대를 받은 후 최희승과 함께 귀국했다.

귀국한 노준택은 다시 병원이 발생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학업을 계속하여 노스웨스턴대학교를 1928년에 졸업했다. 그는 교육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일요강화를 자주 하였는데 1929년 11월 3일 자의 중외일보 석간에는 그날 오후 7시에 정동교회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 그의 이후의 삶은 알 길이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요,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아남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동부교계 게시판



“국가를 위한 기도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하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9월 23일(월) 오후 7시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교협이사회, 장로연합회, 목회자 기도회가 공동 주관한다.

▲문의: (78)279-1414

제 13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성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주최하는 제 13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9월 8일(주일) 오후 5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정석(오보에), 박영정(메조 소프라노), 박진원(소프라노), 한문섭(테너), 오화평(바리톤), KCS합창단, 소나타 다 끼에자 챔버 앙상블 등이 출연한다.

▲문의:(718)288-2447

열린유아원 가을학기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운영하는 열린유아원 가을학기가 9월 12일(목) 오전 10시 개강한다. 참가대상은 만 18개월-3세(8월 31일 기준)이며 신청마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선착순.

▲문의:(646)327-6438

뉴욕어린이양교회 영적 대각성 집회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 영적 대각성 집회가 9월 23일(월)부터 9월 26일(목)까지 오후 8시30분 열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라는 주제로 강사는 유재명 목사(안산 빛나교회 담임).

▲문의: (718)899-8309

샬롯장로교회 가을 야외예배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가을 야외예배가 9월 22일(주일) Frank Liske Park에서 열린다. 동 교회는 일년에 2회씩 야외예배를 갖는다.

▲문의: (704)877-6642

교회의 비전 세우기 워크샵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비전 세우기 워크샵이 10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15일(화) 오후 5시까지 크리스찬아카데미(NJ United Christian Academy, 73 Holm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에서 열린다. 강사는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담임, CRM/NOVO 미주대표)와 박동건 목사(전 CRC교단 한인사역 디렉터, 현 CRM/NOVO 글로벌 대표). 회비는 1인당 120달러(1박4식, 교재비 포함), 교회 개척자의 경우 60달러. 참가신청은 이메일(bigbell59@gmail.com)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제한.

▲문의: (312) 286-4646 최중대 목사

“잘 하였고다” 말 듣는 교협 되길...

뉴욕교협 제 45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 제 45회기 4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토의에서 선관위원장 김영식 목사가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며 목회검증과 재정검증을 함으로 모범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가지 법 즉 첫째,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예배 등 예배를 드리고 신앙 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 재정 결산서를 2년으로 하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첫째 안은 모범에 관한 사항으로 법규위에서 다를 사항이라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으며, 세칙에 관한 둘째 안은 통과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뉴욕교협 제 45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스라엘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합심(통성)기도 박마이클 목사(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을 위한 기도) 심화자 목사(뉴욕교계와 제 45회 정기

총회 준비를 위한 기도),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분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에베에셀선교교회)는 “잘 하였고다”(마 25: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0년전 교협회장으로 회기를 마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주님으로부터 ‘잘 하였고다’ 라는 말이었는데 45회기 임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묻고 “총회를 잘 마치려면 전임 회장들이 공로의식을 버리고 선거 개입 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며 목소리를 낮추고 배후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본을 보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구체적으로 ‘잘

하였고다’라는 말은 듣기 위해서는 첫째, 착한 종 즉 신앙과 인격이 성숙함과 더불어 올바른 종 둘째, 적은 일에 충성된 종 즉 겸손과 성실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순교적 각오로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도자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며 “총회를 마치고 주님께 잘 하였고다 칭찬받는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정순원 목사 사회로 기도 이사장 손성대장, 회원점명 서기 이창중 목사, 회무 보고 총무 이은수 목사, 감사보고 감사 김기호 목사, 재정보고 회계 박정오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재정은 7월 현재 △성령복음화대회 수입 21,548달러, 지출 23,846달러, 잔액 -2,298달러 △할렘루아 뉴욕복음화대회 수입 130,239.61달러, 지출 96,344.25달러, 잔액 33,895.36달러 △건물구좌 모기지 잔액 288,274.69달러, 렌트수입 자체 잔액 32,881.05달러 △5-7월 수입 13,673.71달러(+이월금 26,396.37달러), 지출 288,372.43달러, 잔액 13,051.54달러로 보고됐다.

신임회원으로 전인숙 목사(뉴욕은혜교회, UCC)와 정숙자 목사(불탄동산교회, UPCA)가 가입 허락을 받았다.

한편 뉴욕교협 45회 정기총회는 10월 21일(월) 열리며 46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등록은 9월 3일(화)부터 6일(금) 오후 5시까지다.

(유원정 기자)

회장, 부회장, 감사...마감 9월 6일

뉴욕교협 제46회기 입후보등록 접수공고

뉴욕교협 제 46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접수가 지난 2일자 일간지를 통해 공고됐다. 공고일은 8월 31일.

등록기간은 9월 3일(화)부터 6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등록 장소는 뉴욕교협 사무실이다.

후보 자격은 회장, 부회장은 △분회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목사인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뉴욕에서 담임목회 만5년 이상 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년 이내로 제한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또한 입후보자는 영주권자 이상 소지자,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등이다.

등록서류는 △등록원서 1통 △소속교단 추천서 1통(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분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이력서 1통 △입후보 소견서 1부 △등록비 △목사안수증명서 △여권과 운전면허증 카피 △교회현황서(최근 주보 4매, 출석교인명부 및 2년간 재정결산서 CPA 공증) 등이다.

모든 서류가 하위 또는 위조로 발견되면 선관위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유원정 기자)

제 29기 실버선교학교 개강예배

10월 28일까지...종강후 도미니카 단기선교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이사장 한재홍 목사)가 주관하는 제29기 실버선교학교 개강예배가 8월 26일 오후 8시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드려졌다. 강의는 10월 28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교육 후 옵션으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미니카(전영구, 김부희 선교사, KAPC 소속)에서 단기선교가 진행된다.

개강예배는 김영철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이하영 강도사, 대표기도 이재봉 목사(교수), 성경봉독 문삼성 목사, 찬양 CBSN찬양선교단, 설교 박준열 목사, 헌금 특송 실버미션 찬양팀, 헌금기도 최윤섭 목사, 영상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사 손성대 장로, 축가 김영환 전도사, 축무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인사 장충현 장로,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열 목사는 “복음 중심적인 선교”(롬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교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지역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역”이라며 선교의 키워드인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에큐메니칼운동으로 선교의 개념이 칼바르트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변질돼가는 것을 본다”며,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은 바른 복음, 바른 선교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

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영상 환영사를 통해 “실버선교회는 16년전 27교회 목자들이 뜻을 모아 이뤄진 비전 사역”이라며, “그동안 800여 명이 훈련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10주간 훈련을 통해 도전을 받아 이미 훈련후 파송된 14가정의 뒤를 이어 인생 후반전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바란다”며 축복했다.

한편 2004년 뉴욕실버선교회 창립 때부터 사무처장으로 사역해온 장충현 장로가 부인의 병으로 사역을 멈추고 떠나게 돼 공로패를 받았다. 장 장로는 먼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협조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 강사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재열 목사(“인생 후반전”), 허윤준 목사(“성경속의 선교”), 김종일 목사(“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전영구 선교사(“도미니카 선교현황”), 이은수 목사(“선교의 본질”), 박준열 목사(“미전도종족 선교”), 빈상석 목사(“세계선교의 흐름”), 이재봉 목사(“북미원주민 선교”), 문덕연 목사(“바울신앙의 선교”), 김성기 목사(“선교사의 영성”), 김혜택 목사(“하나님의 선교”), 김홍석 목사(“평신도 선교사의 사명”), 이지용 목사(“단기선교의 축복과 위기”), 최원섭 목사(“단기선교 준비 및 주의집”), 최남종 황달연 장로(“뉴욕실버선교 의료 현장”), 민제기 장로(“타민족 선교체험”).

(기사제공: 뉴욕실버선교회)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임직예배를 마치고 이종식 담임목사부와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님 피 값으로 산 교회에 일꾼 세워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임직예배 총 49명 임직

설립 28주년을 맞은 베이스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8월 25일 오후 6시 임직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15명, 권사 34명 등을 임직 또는 취임했다.

임직예배는 이종식 목사 인도로 기도 최기성 목사(담스페리안교회), 성경봉독 김홍선 목사(새은혜교회), 설교 박등배 목사(필라사머나교회), 임직순서, 권면 홍명철 목사(전노회장), 축사 옥영철 목사(메아필드한인교회)와 김수천 목사(코맥감리교회 은퇴)와 안창의 목사(퀸즈중앙장로교회 은퇴), 축가 이은정 집사, 기념품 증정, 답사 임직자 대표 정훈희 안수집사, 축도 김형일 목사(뉴저지건강한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등배 목사는 “아! 명예로운 직분이어”(롬16:1-13)라는 제목의 설교에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운 직분이니 주님이 주시는 명예로운 직분을 명심하라”며 베드로전서 4장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 사랑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임직자들의 의무를 전했다.

임직순서는 이종식 목사 집례로 서약, 임직안수기도, 약속례, 공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직기도를 통해 이종식 목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에 기동 같은 짐사들을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심을 믿는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도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

하게 하소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직분을 감당하기위해 가정과 사역을 붙들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정훈희 안수집사는 답사를 통해 “교역자와 선배 임직자들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본이 되며 솔선수범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직자는 안수집사 임직 12명(강남준, 김정태, 남제권, 박재만, 서근수, 오익찬, 유광현, 이재득, 전영수, 정명화, 정훈희, 최찬)과 안수집사 취임 3명(문이준, 안상균, 홍성식)이다. 또 권사 임직 30명(강다, 강효정, 고효정, 김숙녀, 김나영, 김미경, 김미옥, 김숙자, 김승미, 문윤희, 민경선, 박정심, 안경애, 안명희, 안준희, 유정이, 윤효순, 이경숙, 이명식, 이미숙, 이영애, 이은자, 이진순, 임순영, 전명자, 주경아, 최복덕, 한은희, 허현아, 홍영숙), 권사 취임 박광자, 명예권사 임직 3명(박영순, 선정자, 유현자) 등 총 49명.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렘선교 출발에 앞서 교회 파킹장에서 기념촬영 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성국 담임목사와 전 목사.

맨해튼 할렘 홈리스 숲키친 사역

퀸즈장로교회 2019 여름단기선교 마무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9년 여름 단기선교가 지난 8월 27일 할렘 선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할렘 선교 역시 맨해튼 솔세이빙스테이션교회에서 숲키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명희 선교사(브니엘선교회 대표)를 방문해 지역 홈리스들에게 오찬을 대접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퀸즈장로교회 선교팀 56명은 85명의 숲키친 참석자들을 섬겼다.

설교는 Yujie Chen 목사(중국어부 담당)가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본문으로 “A Merciful Savior”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첸 목사는 간단한 마술을 곁들이며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케 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가치 있는 자

로 거듭났다”며 원초적인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후 콜링하자 23명이 나와 결신했다.

먼저 Praise Team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전도폭발팀은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팀은 두드림팀의 난타공연, 한국전통무용, 유초등부 파이온팀의 장고와 뿡과리, 이가이 청년의 바다위킵, 주향팀의 부채춤, G2G 유초등부 찬양 등이 이어졌다.

Praise Team은 오찬시간 중에도 찬양을 계속하며 분위기를 뽐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7월 4일 아리조나 선교를 시작으로 8월 30일 에티오피아 선교까지 총 10개 지역 단기선교를 마무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 29기 실버선교학교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클레어몬트신학교 장학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Ph.D 3명, M.Div&M.A 10명 클레어몬트신학교 장학금 수여식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프리관 박사) 장학금 수여식이 JJ그랜드호텔에서 8월 29일 오후 6시에 열렸다. 박성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장학금 수여식은 김웅민 목사(대학발전위원회 회장)가 환영사를 했고 한인장학금 현황 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학증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박정은(Ph.D)과 변건울(M.Div) 학우가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서 김낙인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와 이경식 교수(클레어몬트신학교)가 축하했으

며 박성숙 사모(고 박대희 목사 부인), 김찬희 명예교수(클레어몬트신학교), 그리고 제프리관 총장이 격려사를 했다. 그리고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정은, 이경목, 정희영(이상 Ph.D) △김미정, 김태호, 김형희, 민학기, 박소현, 변건울, 오세진, 이한나, 이현재(이상 M.Div) △공문영(M.Div&M.A).

(박준호 기자)



Beyond Borders 2019 주제 더브릿지 콘서트가 레돈도버치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Beyond Borders 2019 주제 더브릿지 콘서트, 일본연합단체 링크LA 주관

더브릿지 베네핏 콘서트가 "Beyond Borders 2019" 주제로 8월 24일 오후 7시30분 레돈도버치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더브릿지의 공민 선교사는 "한일관계가 엄중한 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기에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콘서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악이라는 은사를 심분 활용해서 미국에 계신 크리스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콘서트의 스태프로 참여한 박은성 목사(Acts Global Church)는 "공민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로 쓰나미와 지진이 날 때마다 일본에서 찬양과 음악으로 일본사람들을 섬겨왔

다"며 "어려울 때마다 일본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일본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번 공연 역시 일본에 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연합으로 사역하게 됐으며 일본목회자 성도연합 단체인 링크LA에서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공민 선교사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했으며 테너 변홍길, 보컬 이시은, 색서폰연주자 박광식, 베이스 트 임영훈, 드러머 임용훈 등이 무대에 올라 팝, 가요, 찬양을 불러 공연장을 찾은 1400여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리틀도쿄에서 열린 브릿지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회장 박웅기 목사) 창립 제13주년 기념행사가 9월 1일 오후 2시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박웅기 목사 사회로 열린 기념행사는 윤갑식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병용 목사가 "그게 바로 나야"(전:3: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각 지역(미 전지역, LA, O.C, IN, SB, 벨리, 한국) 등지에 설립돼 있는 부모님선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양로병원과 그 안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김창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회장 박정기 목사 연임

베데스다대학교 동문회 총회, 회칙수정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박정기 목사) 총회가 엘파소순복음교회(담임 노석 목사)에서 9월 2일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박정기 목사가 2019-2020년 회장으로 연임됐다. 박정기 회장은 "베데스다 총동문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동문회장으로 연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 생각한다. 이 사명을 1년 동안 동문여러분 잘 섬기고 학교에 목소리를 내서 동문회원들의 권익을 도모

하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밀거름이 될수 있게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정기 회장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총회개회선언, 회순통과 및 회원점명, 회칙수정안 통과, 기록서기 임명, 총동문회 경과보고, 2018-19 재정보고, 임원선출 및 신입회장 인사로 이어졌다. 이날 회칙이 수정됐는데 회장임기에 대해 종전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모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총회에서 증경회장 김훈 목사가 축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참여자" 주제로 마가교회, 변영호 캄보디아선교사 초청 세미나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는 변영호 캄보디아선교사를 강사로 "그리스도의 참여자" 주제로 8월 24일과 9월 1일 세미나를 열었다. 8월 24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변영호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참여자는 선교사로서 하나님나라 보는 안경을 쓰는 것"이라며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보는 것은 목자들이 담당해야하며 선교지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실제로 살아보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자기부인을 하며 살아야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참여자는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려면 예수 사랑의 강권하심이 어떤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사랑에 빠져있어야 한다"며 복음소식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 아님 마음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것을 가지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마가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참여자 주제 선교사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변영호 캄보디아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신입회원 환영식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신입회원 환영식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 신입회원 환영식이 8월 30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식에서 정지윤 회장은 "8월 달은 행사가 많아 분주했다"며 "우리들은 문인들이지만 크리스천들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본회 이사 최학량 목사가 기도하고, "네 이름이 무엇이나"(창:32: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송택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에서는 회원들이 시낭송을 했다. 홍유리, 조진숙, 조정화, 이정은 씨 등이 시낭송을 하고 정지윤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특강 순서에서는 최선호 목사(평론가, 시인)가 문학 강의를 하고 김창호 목사가 폐회기도를 하고 점심식사를 했다. 한편 본회는 9월부터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행사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계창조선교회(WCM, 회장 박창성 목사)가 주최하는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9월 20일(금)-24일(화) △9월 26일(목)-30일(월)(라스베가스 출발) △10월 4일(금)-8일(화)로 스캔젤레스 집결, 라스베가스 합류가능) 4박5일간 진행된다. 여행지는 미국 3대 국립공원(그랜드, 브라이스, 자이언 캐년) 및 앤델로프캐년, 파벨 호수, 글렌캐년 댐 등. 모집인원은 12명 이내 선착순. 참가비 및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wcmweb.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503)330-2981

법과교회세미나

아주사피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는 법과교회 세미나를 9월(월)과 10일(화) 양일간 가든스윗호텔에서 갖는다. 강사는 브래드 대쿠스 대표(태평양법률협회 대표),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인 디렉터), 마이클페퍼 변호사(태평양법률협회 산타아나 오피스 상임변호사)이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30달러(교재, 점심식사 제공). ▲문의: (661)618-9392

좋은마을교회 설립35주년 기념 감사축제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설립35주년 기념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일정은 국제고아후원 8년차 이사회 대회가 7일(토) 오후 7시, 설립기념 축하예배와 3세계헌지목회자훈련 7년차 감사예배, 그리고 영성사역원훈련 28년차 감사예배가 8일(주일) 오후 11시45분이다. ▲문의: (714)646-9259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고봉준 목사(사마리아교정선교회 대표) 초청 특별간증집회가 6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6일(금) 오후 8시 30분 올림피아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7일(토) 오전 6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8일(주일) 오전 11시 LA선교회(담임 장태원 목사), 11일(수) 오후 7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담임 엘리아김 목사), 15일(주일) 오전 11시 LA시티교회(담임 썬니 김 목사). ▲문의: (213)739-0403

담임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한인교회는 조정기 담임목사 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 졸업한 자로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미국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최근설교 CD, 추천서를 12월 31일(화)까지 보내면 된다. 제출방법은 청빙위원회 이메일(jungeun.park1014@gmail.com), 혹은 우편(431 N Lewis St, Mesa, AZ85201)로 보내면 된다. ▲문의: (480)435-0998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에서 GMU 필그림 코러스팀이 찬양하고 있다

GMU 필그림 코러스팀 구성 그레이스미션대 2019가을학기 개강부흥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가 'Survival에서 Revival'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 1층 채플에서 오후 7시에 열렸다. 첫째 날에는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가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둘째 날은 최규남 총장(GMU 총장)의 '창조의 6일'이 선포됐으며, 셋째 날은 한기홍 이사장(은혜한인교회 담임 목사)이 '주님께 기억되는 사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 순서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GMU 필그림 코러스팀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의 찬양이 있었다. 필그림 코러스팀은 현재 GMU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위해 GMU에서는 '음악사역을 위한 발성 개발(Vocal Development for Music Ministry)' 과목을 개설해 에스더 구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이며, admissions@gm.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디지털 세대에 물리적으로...

(2면에서 계속) 상점은 그들의 게임을 더 경험적인 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고 작은 가게들은 주류 가게들에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대화는 단순히 리테일의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세계가 없기에 "피지컬리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이것은 현실세계의 배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하는

것과 디지털로 하는 것의 통합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한쪽만 하는 것보다 두 가지 모두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전략적이다. 누군가가 특정한 한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아주 물리적인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피지컬이다. 친구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을 때, 이 초대는 종종 웹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그 교회를 디지털 상에서 방문해보는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예장통합·예장합동 연합기도회로 뭉쳤다

남북문제, 한·일 갈등 위기 속 국가미래위한 협력결의 다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이 교단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 차원의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양 교단은 “남북문제와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빠르게 세속화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은 더욱 절실해졌다”며 “지난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앞날의 대처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기도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장로교(합동·통합) 연합 기도회’로 명명된 예배는 1일 경기도 안양 평촌교회(림형석 목사)에서 드러졌다. 예배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깃발 뒤로 양 교단 임원들이 입장하며 시작됐다. 성서 교독은 시편 133편이었다. 2000여 성도들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낭독했다.

예장통합 총회장인 림형석 목사는 “오늘은 1912년 9월 1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된 지 107년을 맞는 날인 동시에 양 교단이 나뉜 지 60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한국에 장로교회를 독립된 교회로 세워주신 날을 맞아 교단 분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셨다”고 인사말을 했다. 평촌교회 새에덴교회 익투스 찬양대의 합창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예장합동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는 ‘우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1912년 양 교단의 모체인 조선예수교장로회가 평양에서 제1회 창립총회 개최예배를 드릴 당시 총 교인 13만명에 기도처를 포함한 교회 수가 2,504개였다”고 회고했다. 이 총회장은 “1959년 교단이 분열될 무렵 제가 태어났다”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울면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과 합동, 두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발음도 비슷하다”면서 “60년이 지나 서로 협력하

며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이 예고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 앞에선 너와 내가 없이 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 순서가 이어졌다. 예장합동 서기 김종혁 목사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기도하며 “갈등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예장통합 서기인 김의식 목사는 “군대에서도 학원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저희를 써 주소서”라며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예장합동 회록서기 진용훈 목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예장통합 회록서기 윤마태 목사는 한·일 관계 회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교단은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협력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며 분열돼 오늘에 이른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기도회 참가자를 대표해 메시지를 내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한마음으로 연합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예장백석대신 새 총회장에 장종현 총장

제42회 총회, 총회 화합과 수습 위해 만장일치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대신이 총회 명칭을 예장백석으로 바꾸고 교단 안정을 위해 장종현 백석대 총장을 총회장에 추대했다.

예장백석은 3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42회 총회에서 교단 명칭을 예장백석으로 교체했다.

과거 예장백석이었던 총회는 2015년 예장대신과 통합하면서 대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통합한 구 대신 측이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류측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면서 대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유지재단에 구 대신 측 교회가 20개 이상 들어오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 불발돼 명칭을 다시 백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교단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으며, 총회의 안정을 위해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회장과 증경총회장이 상의해 부총회장을 지명키로 했으며, 임원은 2배수 추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단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강경조치도 채택됐다. 증경총회장 5명으로 하는 정책자문단을 재구성해 총회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SNS를 통한 비방, 불법 통화 녹음, 조작된 허위정보 유포, 총회 공문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처벌 및 징계조항을 두기로 했다. 특히 지난 회기 발생한 교단 내 모든 송사와 관련해 2개월간 특별재심원을 구성해 시 백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2일에는 만장일치로 장 총장을 총회장에 추대했다. 장 총장

“주님만나고 주 안에 굳게 서라”

2019성령한국청년대회, 1만8천명 뜨거운 기도 찬양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1만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년대회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청년대회에서는 3명의 설교자가 ‘만나다’ ‘비우고 채우다’ ‘보내다’를 주제로 차례대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설교자들은 세대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미로 양복과 넥타이 대신 민트색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신앙의 동지도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꿈과 비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원대한 계획의 소망을 받으라”고 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목사는 “세상의 욕망을 비우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라”고 강조했다. 박목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생긴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다. 이어 “이 자리의 청년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의 순회선교단 대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절규하듯 물었다. 그는 “예배당 안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은 단국대 행정학 박사과 미국 아주사피서픽대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백석대 설립자로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과 예장대신 총회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 제7대 백석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장 총장은 “교단이 이해처럼 어려움을 겪은 적은 처음이다.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 고사했으나 총회의 화합을 위해 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의 헌법이 무너지면 총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도록 2심, 3심 제도를 보완하겠다. 사회법보다 교단 헌법이 권위가 더 높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목사제1부총회장에는 류춘배 화성 정남중앙교회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정영근 서울 예수교회 목사, 장로부총회장에는 안문기 성남성남교회 장로, 서기에는 김진범 서울 하늘문교회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 많다”면서 “그런 사람은 결국 영적 고아가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또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했다.

파송의 메시지는 김정석 서울 광림교회 목사가 전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확신을 선물한 시간이었다. 김 목사는 “간절한 기도가 이뤄지기 위해 먼저 결단할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고,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흔들리지 않으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 기독교대한교회회가 개최한 성령한국 선교대회에서 시작했다. 이후 국내 초교파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격년으로 청년대회를 열고 있다.

“부모가 자녀교육 주체로 나서야”

한교총, 다음세대양육 ‘한국교회 교육심포지엄’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박종철 이승희 김성복 목사)은 29일 서울 용산구 만리현성결교회(이형로 목사)에서 ‘한국교회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체적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기독교교육학) 교수는 “한국교회가 학령인구와 종교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면서 “학령인구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10년 만에 31% 줄어들었고, 같은 시기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41.9%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령인구보다 교회의 다음세대가 더 많이 감소한 데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세속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자 하 등 부모 요인이 가장 컸다”면서 “그다음에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세대와 주일학교를 구분해 신앙교육을 진행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200년 넘게 많은 공헌을 했다”면서 “하지만 부모가 신앙교육을 교회에 떠맡기는 풍토를 만들면서 가정 내 신앙교육 기능을 상실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교육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현재의 지역별 교구제를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별 모임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육에 대항하기 위한 홈스쿨 활성화,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미션스쿨 회복 운동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본부장’이 돼 부모에게 승부를 걸어야

하며, 연합기관도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연구와 교재 개발, 대안 제시 등 연합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이디온선교회 설립자인 양승헌 세대교교회 목사도 “한국교회가 그동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며 성도가 아닌 주일학교 학생으로 키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렇게 주일학교로 분리해 다음세대를 키우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우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양목사는 “교단별로 중북부자를 하면서 교회학교 교재를 개발하기보다 공통본모를 만든 뒤 교과별 특성은 특별과목으로 가르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한교총 대표회장인 박종철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수십년간 성도들을 양육하며 깨달은 것은 성경을 통해 다져진 사람이 결국 굳건히 서 있더라는 것”이라면서 “다음세대가 말씀을 철저히 훈련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KHTV 생방송 중단되고 동영상 삭제

퀴어행사 반대집회 증계하던 유튜브 방송

퀴어행사 반대 집회를 실시한 증계하던 유튜브 방송이 증오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4시간짜리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인 KHTV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개최된 ‘인천 퀴어 반대 연합집회’를 생중계했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선 목회자와 학부모들이 나와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리고 동성애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지키자며 눈물도 흐소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발언, 영상시청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생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 “증오심 표현에 대한 유튜브 정책 위반해 삭제된 동영상이다. 거주 국가의 증오심 표현 방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왔다. 유튜브의 ‘증오심 표현을 금지하는 정책’에 따르면 ‘연령 장애 민족 성적정체성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성적취향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고 나온다.

유튜브가 KHTV의 영상 콘텐츠를 삭제한 것은 퀴어행사

와 동성애의 실체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날 김광규 KHTV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KHTV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정책을 위반했기에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증오심 표현이라고 낙인찍는다면 독설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콘텐츠, 개인 유튜브 방송은 모두 삭제하고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목적을 높였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도 “한국사회에선 아직 혐오표현, 증오표현, 헤이트 스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합의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 “유튜브가 특정 콘텐츠를 증오심 표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용어를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쟁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양

심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비판만 증오심 표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의 홍보대행사는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검토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한다”면서 “유튜브의 증오심 표현을 금하는 정책은 사이트를 참고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증오심 표현에 해당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펼친다.

월드헤브론, 중국에 한동희 축구선교사 파송

대규모 선교사 추방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 축구선교사가 새로 파송된다. 대륙 북쪽 전파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어려운 속에서도 축구를 매개로 성경 속 신뢰 우정 평등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다.

(사)월드헤브론(상임회장 류영수 목사)은 2일 인천 부평구 헤브론 부평센터에서 한동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등 동성애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후보자임명반대전국네트워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에 대한 지명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후보자임명반대전국네트워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전주교인모임,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그동안 동성애를 반대해 온 단체가 연합해 조직됐다.

이들은 “그동안 조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 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면서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등 균형 잃은 윤리의식이

“총대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해야”

예장통합 여성위, 간담회 열고 청원 준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전체 성도 가운데 여성은 57.4%로 남성 42.6%보다 많은데 2017년 기준 교단의 여성 총회대의원(총대) 비율은 1.2%

에 그친다. 남성 총대가 무려 98.8%를 차지한다. 지방 68개 노회별로 단 1명이라도 여성 총대를 파송해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 때 여성을 할당해 달라

는 청원도 준비 중이다. 예장통합 총회 여성위원회는 29일 서울 중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여성 총대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 달 23일부터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기 총회를 앞두고 여성 총대들이 모여 교회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1500여명 총대 가운데 여성 총대는 26명뿐이다.

김명옥 총회훈련원 원장은 “여성위원회 이름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청원해 더

적극적인 양성평등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 헌의안이 부성함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장통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같은 장소에서 제104회기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를 개최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신정호(전주 동신교회) 목사는 “회복 화해 평화의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김순미(영락교회) 장로는 “총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총회장을 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사 장로 각 1인만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다음 달 총회에선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①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한국에서의 선교

지난 2년 여 동안 “교도소 선교칼럼”을 집필해주신 이영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호부터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이 목사님의 저서 “우울증과 영적 치유”(Twisted Logic: The Window of Depression)를 발췌 게재한다. 이 책은 영문으로도 출간됐다(2018년). [편집자주]

뒤틀린 논리란 무엇인가?

영적 억압은 초자연적 영향을 끼치며 그 발달은 마귀와 악령들로,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육체적인 공격당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런 물리적인 이유 없이 많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영적

뒤틀린 논리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파괴적이고 상처받아 생긴 비논리적, 혼란을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악한 음성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참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억압에서 치유 받을 모든 해답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과 뒤틀린 논리

내 개인적인 경험과 사역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혼란한 생각이 영적 억압과 함께 어울릴 때 극심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나의 책 “뒤틀린 논리, 자살의 그림자”에서 “적색 지역”이라 부른다.

그 적색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삶을 끝내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아픔이 끝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뒤틀린 생각이고 이것이 영적 공격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다. 자살 충동을 느끼지는 않지만 우울한 사람은 노란색 위험 지역에 속해 있으며 그들 또한 치유가 필요하다. 만일 치료하

바란다. 이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관점은 감정과 영적 치유에 있다.

모든 우울증이 파괴적인 생각이나 뒤틀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는 신경질환이나 화학적 불균형을 보여서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약물치료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 모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육체적인 이유로 생긴 우울증이라면 약물 치료로 치유가 될 수 있다.

칼럼을 쓰는 이유

내가 만났던 우울증 환자들 중에 약물 사용의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까지 못하거나, 혹은 항상 행복한 느낌 등 몇몇 부작용은 그들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힘들게 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살 충동이나 폭력적 반응의 부작용으로 항우울제 복용을 그만둘 때도 있다.

약물 복용으로 치유가 되지

기도/칼럼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돈, 명예, 권력, 건강, 성공, 음악, 사랑... 사람마다 다르다. 솔로몬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만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기쁨은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든다. 기쁨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 귀한 시간을 쓰레기같이 버리는 것과 같다. 스스로 불행은 자초하는 것이다.

참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온다.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나온다. ‘좋았다’는 히브리어로 ‘토브’이다. 그 뜻은 “즐거움, 기뻐하는, 쾌활한, 풍부한, 달콤한, 부요한, 잘되는, 아름다운”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와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보금자리는 에덴동산이다. 낙원, 기쁨의 동산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수고와 땀, 눈물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갔다. 대신 괴로움과 근심,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실낙원 인생들을 위해 아들을 구주로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죄와 사망과 고통에 빠진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다.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구원의 기쁨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영생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이 기쁨 앞에 인생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시35:9).

bible66@gmail.com

하나님 말씀은 영적억압에서 치유 받을 모든 해답과 방향 갖고 있어 신경질환이나 화학적 불균형으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 약물치료 도움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념, 용서, 희망, 평화, 영적 자유, 그리고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준다. 뒤틀린 논리는 걱정, 두려움, 혼란과 괴로움으로 인한 혼돈, 절망, 무력감, 낙담,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깊은 감정적 고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뒤틀린 논리를 파괴적인 생각, 음성, 그릇된 생각, 혼란스러운 음성, 상처 주는 생각과 음성, 꼬이고 왜곡된 사상이라고 부른다.

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파괴적인 음성을 들으며 귀로도 들을 수 있다. 그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무엇인가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악령들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잠잘 동안 꿈에서도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지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과 두려움과 무력감은 절망감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영적인 공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만 자연적 현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들도 적색 위험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약물 치료와 우울증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치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는다. 의사들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움을 주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칼럼에서 당신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파괴적 음성으로부터 매일 고통 당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우울제가 작용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 침체와 영적 억압으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는가?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려 한다. 파괴적 음성과 영적 억압에 의한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디지털 세대에 물리적으로...

(11면에서 계속)

이것이 모두 잘된다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피지컬로 이어진다. 이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더 많은 결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1. 당신의 디지털적인 현존이 이제 교회의 현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관문으로 디자인돼야 한다. 이것은 마치 80년대 주일 예배가 교회의 현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손님들에게 전략적으로 섬세하게 “개방돼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웹사이트와 SNS라는 현관문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열어야 한다.

2. 누군가가 교회를 찾는데 있어서 우선시되고 중요한 조건들(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캠퍼스 교회가 있거나 하는 등)인 이

전의 장벽들은 대부분 낮아지게 됐다. 교회를 탐색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디지털적인 경험이 좋았다면, 물리적인 위치는 실제 방문을 결정짓는 데 덜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교회의 디지털 현관문은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매끄럽게 통합돼야 한다. 디지털 이미지와 당신이 보여준 약속들이 반영된 경험을 가짐으로서 분명

하게 돼야 한다.

4. 디지털을 단순한 현관문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교회의 피지컬한 본성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타내져야 한다. 어린이 사역의 출석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주말의 설교에 비춰 더 배울 수 있거나 추가적인 콘텐츠가 제공되는 앱 등으로 말이다.

방문객은 디지털로 방문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교회로 걸어올 것이다. 그들이 교

회를 답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회에 동화되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역동성을 유지하라.

5. 물리적인 경험은 반드시 디지털 경험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가 성경적으로 기능하는 공동체를 제공하는 데는 제한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교회를 살펴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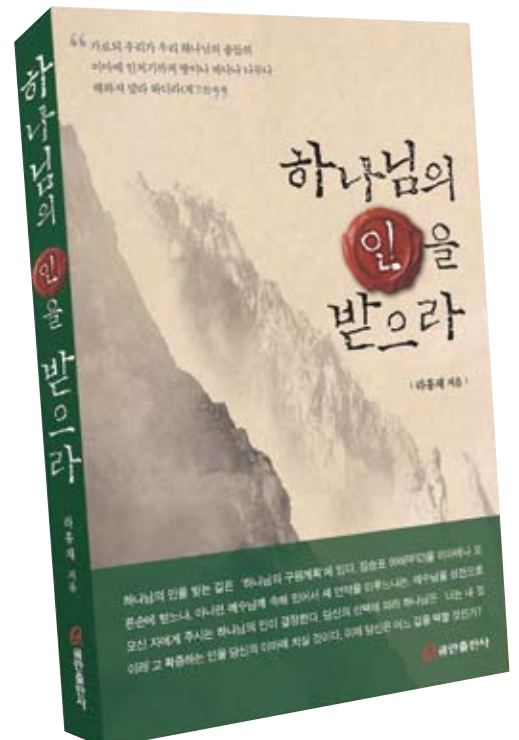
그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인해 서 유도됐지만, 물리적으로 교회를 경험함으로써 처음에 그들이 몰려온 곳이 어디든지, 마지막 지점에서 경험한 장소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피지컬 수요의 표면을 긁고 있을 뿐이다. 리테일의 세계에서나 교회의 세계에서나. 하지만 실수하지 마라. 그 깊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원로칼럼

완주자의 노래(1)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젊음 그리고 늙음

2014년 9월 22일부 25일까지 서울 소망교회에서 필자가 속한 통합교단 총회가 회집되었다. 매년 개최예배 시 증경총회장들이 총회장 가운데를 입고 입장하는 것으로 개최예배가 진행된다. 올해도 증경총회장들이 참석했고 개최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째인 화요일에는 증경총회장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순서가 있었다. 필자는 81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니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약관 55세에 부총회장으로 피선될 때 서울지역에선 최초 최연소 총회장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가는 세월 막을 길 없이 필자도 원로 축에 끼게 됐다

본 교단의 생존 증경총회장은 모두 24명이다. 56회 총회장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은 1911년생 104세로 총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었다. 보행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셨지만 정신력이나 기억력은 여전히 젊었고 집필 활동도 끝까지 하셨다. 그 외 증경총회장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분, 질병으로 출입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여서 셀 수가 없었다. 그동안 총대 분포를 보면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총회가 젊어진 것이다.

젊다는 것, 그것은 자랑이고 자산이다. 목회자들이 세대교체가 급물살을 타고 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젊음이 약점은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서투르고 조급하다는 것, 패기만을 앞세워 판단이 서투르다는 것이다. 모 주간지 고정 칼럼이 생각난다. 글 내용은 젊은 이들의 도전과 용기를 예찬하면서 기성세대와 노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버릇없음을 꾸짖는 것이었다. 그 글 말미는 '너도 늙어봐라'였다. 필자도 젊은 시절 은퇴를 한다든지 70세를 넘기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남의 일이었다. 오는 백발을 막으려 해도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가 된다.

정도 목회, 정도 목양

필자는 위임목사나 후배들에게 정도 목회(正道 牧會) 정도 목양(正道 牧羊)이라는 휘호를 선물하곤 한다. 정도와 균형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갈한 목회로 마침표를 찍으려면 정도라야 한다.

필자는 1966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48년이 되는 셈이다. 길고 먼 여정,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고 산 넘고 물 건너는 삶을 48년 이어 나왔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정도를 걷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힘썼기 때문이다. 대다수 대성을 이룬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정도를 빗나갔기 때문이며, 균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고공에서 줄 타는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야 한다. 체중 100킬로그램 넘는 사람이 줄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줄이 끊어지거나 지지대가 무너져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경우 과제중이 걸리면 문제가 일어난다. 목사의 위치가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비만 현상이 일어난다. 비만과 과제중은 온갖 성인병을 유발한다.

지인과 친구는 유사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다. 지인은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친구는 지인의 단계를 넘어 사랑과 정을 나누고 힘을 때 할 때 도와주고 편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목회도 친구가 필요하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위로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친구 찾기가 어려워졌다.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비정 윤리가 판을 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망해야 내가 흥하고, 내가 쓰러져야 내가 일어선다는 악덕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다. 교회 갈등과 교파 분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흐름이 속속 드러난다.

- 2019년 여름 단기선교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7/29-08/5)

2019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단기선교는 신학교강의,목회자 세미나와 전도폭발강의, 어린이전도폭발(Hope For Kids), 선교무용, 미용과 네일, 컴퓨터, 사진 등 다채로운 사역으로 김성국 목사와 감지영 전도사와 8명의 대원과 알마티퀸즈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 9명이 12일간 동역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는 27년전, 척박한 선교지에 세워진 퀸즈장로교회의 지교회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아우르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 선교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 사역과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펼쳐왔다.

이번 단기선교에서 처음 시도한 강지영 전도사의 어린이 사역은 엄격한 종교법으로 인해 현지의 선교사에 게도 어려운 선택이었고, 뉴욕에서 사역준비를 하면서도

김성국 목사는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의 정체성과 교회의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목회자, 선교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강의로, 목회자와 선교사는 목사, 학자, 아버지, 지도자, 행정가, 설교자, 치유자, 기도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각 교회는 그 교회의 비전을 종이 한 장에 분명히 그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퀸즈장로교회의 4대 비전을 칠판에 그려가며 강의하였다.

선교팀은 7월 30일부터 5일간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마치고 8월 4일 주일 예배 후 4시간을 차로 이동하여 키르기스스탄 국경에 도착하였다. 종교적 내용이 들어있는 어린이전도폭발 교재와 사역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 4개를 가지고 국경세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선교대원들은 개인 짐만 가져가고 현

서 자라고 있지만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복음을

현지목회자를 세우고 차세대 세우며 그 땅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삶으로 복음을



신학교 강의와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에서 현지 목회자, 신학생, 교인들과 함께



어린이전도폭발사역에 동역한 알마티퀸즈의 카리나교사 어린이들에게 성경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김성국목사

현지 목회자와 차세대를 세워가는 비전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의 은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하지만 알마티에 도착하여 학생, 청년, 집사로 구성된 9명의 주일학교 교사팀과 3일간 진행될 사역을 위한 모임을 시작으로 차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체감하며 큰 비전을 갖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 교사 4명이 자신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키르기스스탄 선교일정에 합류한 것이다. 선교지에서 자란 젊은 집사들과 청년들이 이웃나라 키르기스스탄의 어린이 선교사역에 동역함으로써 알마티퀸즈장로교회 27년의 씨뿌림과 양육, 성장, 결실의 열매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차세대 비전을 향해 도전적인 한걸음을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다.

지인인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가 사역가방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하였다.

세관원과의 작은 마찰로 인해 모든 가방이 스캐너 검열대로 옮겨지게 되며 우리들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으나 스캐너를 통과하려는 순간 기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아무런 검사 없이 통관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였고 앞으로의 남은 사역 또한 동일한 은혜로 감당되어질 것을 확신하였다.

99도의 무더운 열기 가운데서도 첫날 44명, 둘째 날 57명, 마지막 날 72명의 이슬람권 어린이들이 어린이전도폭발(Hope For Kids)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비록 이슬람가정과 문화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린이 전도폭발에 참여한 현지 아이들

들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중 앙아시아를 변화시킬 주역들이 되어있을 것을 기대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 13년간 삶으로 헌신하며 사역하는 박선교사의 가정과 뉴욕 퀸즈장로교회 8명의 선교대원,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4명의 선교대원이 함께 동역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역이 되었다.

살아가는 선교사와 그 가족을 향한 우리의 동역이 기도와 섬김으로 계속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였다.

12일 간의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각자의 복음의 현장인 알마티와 뉴욕 퀸즈로 향하는 선교대원들은 더욱 힘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정민영 집사(퀸즈장로교회)

Rev. Sunja Kang Memorial Lectureship



“당신의 교회는 안전 하십니까?” 법과 교회 세미나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막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엄습해 옵니다. 물론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에서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생소한 주제를 통해 “법과 신앙”, “법과 목회”, 그리고 “법과 전도” 등 현재 교회와 목회에 당면한 법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오는 9월 9일(월)-10일(화) 양일간 “법과 교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Randy Sung Ju



Michael Peffer, Esq



Brad Dacus, Esq

일시: 9월9일(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장소: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태평양법률협회 대표),

주성철 목사(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인 디렉터),

마이클 페퍼 변호사(태평양 법률협회 Santa Ana Office 상임 변호사),

대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교회리더 70명 선착순

등록비: \$30(교재, 점심식사 제공)

강의일정: 9일 제1강의: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권리(강사: 주성철 목사)

제2강의: 문제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책자 및 출석자 관리(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

10일 제3강의: 목사, 교회 그리고 개인의 권익(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

제4강의: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강사: 주성철 목사)

문의: (661)618-9392, (213)407-1710

주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



영어로 보는 성경 (33)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Obadiah 1:2-4

2) "See,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will be utterly despised. 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s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you who say to yourself,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4) Though you soar like the eagle and make your nest among the stars,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declares the LORD.

(NIV 1984)

WORD & IDIOM

* utterly: 아주, 완전히 * despise: 경멸, 멸시하다 * deceive: 기만하다, 속이다 * cleft: 갈라진 틈 * heights: 높은 곳 * say to yourself: 속으로 생각하다, 혼자말을 하다 * bring A down to ~: A를 ~로 끌어내리다 * soar: 높이 치솟다, 큰소리치다 * nest: 둥지

GRAMMAR

2) "See,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보라 나는 너를 작게 만들겠다. 열방 가운데서 you will be utterly despised."

나는 완전히 멸시를 당할 것이다 ⇒ 보라, 나는 너를 열방 중에 작은 나라로 만들 것임으로 너는 완전히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 <I will make you small>는 <주어 + 동사 + 목적어 + 수식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5형식문장이다. <I will make you ~>는 <나는 너를 (~)하게 할(만들) 것이다.> 이 때 (~) 안에 들어갈 수식어(형용사)를 목적어 <you> 다음에 넣으면 된다. Ex) I will make you happy =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 줄(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5형식에서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우리말로 (작게, 행복하게)처럼 부사와 같이 해석하여 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 (:은 <그러므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s

너 갈라진 바위들 틈들 안에 사는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그리고 높은 곳에 너의 집을 지은

you who say to yourself,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너 혼자말을 하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릴 수 있는가? ⇒ 갈라진 바위틈들 가운데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너,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혼자말을 하는 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has deceived you>)에서 <you>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 문장이 되었다. * <you>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 <who>의 선행사로 반복해서 쓰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문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파악만을 위해서라면, 해석을 위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문장으로 해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독해를 할 때 자주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하면 독해 실력 향상이 더디다. 앞에서부터 뒤로 죽 읽어가며 영어식 표현 방법대로 생각하며 이해하기를 연습하라. 3절을 예로 들어 다시 해석 해보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나는 갈라진 바위틈에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혼자서 말을 하지,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릴 수 있느냐고'"

4) Though you soar like the eagle and make your nest among the stars,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그리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만들어도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declares the LORD,

거기로부터 나는 너를 끌어 내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 하신다 ⇒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어도 나는 너를 그곳에서 아래로 끌어 내릴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STUDY & THOUGH

■ 에돔에 대한 오바다의 멸망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BC 851년에 에돔의 수도인 셀라(페트라)가 정복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다중적인 성취를 이루며 마침내 AD 1세기가 지나면서 그 존재가 미미하다가 결국은 그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에돔은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에 팔고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3절) 언약의 대를 잇지 못한 그들의 조상 '에서'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멸망을 재촉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한 것과 그 교만이 멸망의 길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삶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God punishes the proud and breaks their prid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jameshur63@hotmail.com

월 믿음의 주, 예수(히12:2)찬139장

사도는 11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주장합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본이십니까? 첫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이 성취됨으로 펼쳐질 새 언약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단번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심은 자기 백성의 형벌과 죽음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죄사함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11:3)찬421장

그리스도가 보인 믿음의 본은 그의 참으심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는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의 악함을 견디셨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참으심이 십자가 길입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 이런 역울한 일은 교회가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제일가는 요소입니다. 둘째, 그 참으심을 배우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과 이기주의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쉽게 내용뎠이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견뎌야 할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참음의 본을 보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그 자취를 더듬어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이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결과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수 죄와 싸우는 신앙(히12:4-5)찬393장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새 언약백성,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좁은 길입니다. 첫째, 그들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를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의 삶에 실재하는 죄에 떨어뜨리려는 온갖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고 우리 속에 발동하는 육의 부패성과 싸워야 합니다. 둘째, 언제까지 싸우니까?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임

아는 그들은 온갖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최대의 희생을 치릅니다. 셋째,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징계하심을 알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용사입니다.

목 징계의 의미(히12:6-7)찬450장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찾아오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사랑의 징표로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무관심함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시며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은 자녀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 사랑의 손에 입맞춰야 합니다. 둘째,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신분관계의 자각에서 나옵니다. 죄인됐을 때 그

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실같이 징계를 통해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이 증거가 희미할 때 우리는 이 기본적인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참음을 배우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하루를 돌리지 않고 평생 걸리는 긴 신앙의 여정은 참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를 알 때 나오는 생산물입니다.

금 징계의 목적(히12:8-10)찬49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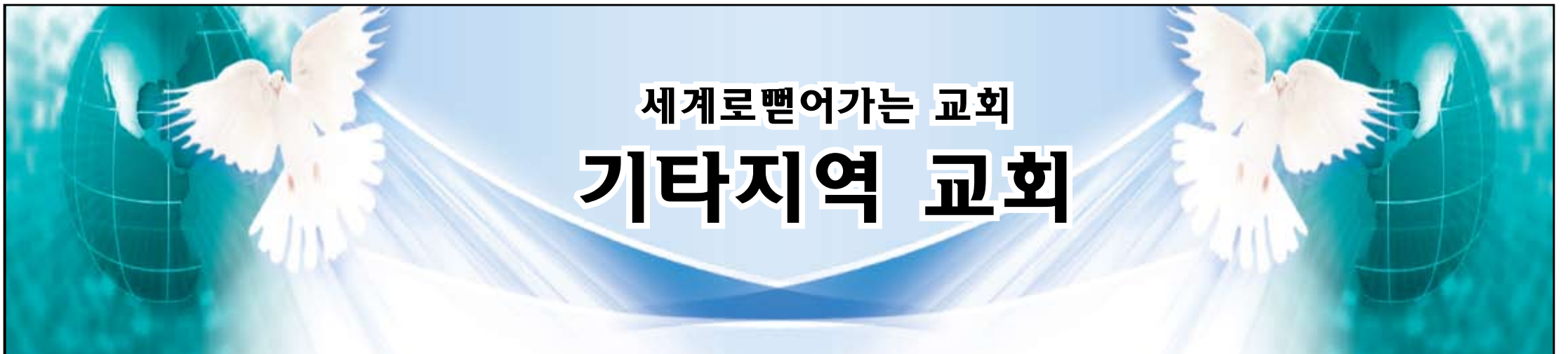
왜 하나님은 자기백성을 징계하십니까? 첫째, 자기 아들이란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8).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자라는 증거이기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관계의 신분을 주장하며 그 자리에 거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둘째, 공경과 복종을 배우게 하려 함입니다(9). 이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는 이 친밀함

로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즐깁니다. 셋째, 그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십니다(10). 이 징계가 그렇게 아파보여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새 언약의 절정인 하나님과의 연합된 교제를 이루시려고 마십니다. 그 아버지께 항상 복종하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토 징계의 결과(히12:11-13)찬459장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첫째, 의의 열매를 가집니다(11). 불의한 죄에서 벗어나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변화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생기는 귀한 열매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서 온갖 일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강의 열매를 가져옵니다(11). 의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아픔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합니다. 셋째, 치료를 받아 강해됩니다(12-13). 이런 의와 평강은 영육간의 치료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처럼 할 아버지의 징계를 감사히 받아 견뎌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이 복된 꾸지람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흥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헌년회: 오후 1: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urg R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느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44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s.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양극화 현상은 감정에 치우친 집단적 사고!

컨버선이션, 밴더빌트대학 정치학 탈리세 석좌교수 설명 소개

현 시점에서 많은 정치인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한탄하고 있다.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 좌절된 시민들 역시 각기 다른 쪽에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를 비난하는 것은 적을 문제 삼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 그런 한편 양극화가 만들어낸 정치적 교착상태와 분노는 다루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양극화”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평론가는 많지 않다. 양극화에 맞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극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밴더빌트대학 정치학과 탈리세(Robert B. Talisse) 석좌교수는 곧 출간되는 책 “Overdoing Democracy: Why We Must Put Politics in its Place”에서, 양극화가 뉴스를 어디에서 얻는지, 어떻게 정치인이 서로 갈려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극화는 얼마나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감정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안에 들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Maybe 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but political polarization is about feelings, not facts: Diversifying your media diet might help prevent political polarization-but it may not reverse the polarization once it's taken effect)

양극화, 세 가지 방법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양극화는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 간 정치적 거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측정하기는 생각처럼 매우 단순하지는 않다. 정치학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다른 정치적 거리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경쟁하는 정당의 정견을 비교하는 것이다. 양극화는 두 정당의 정견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정당 간 사상적 동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극화는 정당의 입원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도”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당과 연결된 일반 시민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관련된 것을 얼마나 좋아하지 않는지를 주로 본다.

관련된 연구들은 비록 주요 미국 정당이 심각하게 앞서 말한 두 측면에서 양극화됐을지라도 미국 국민들은 30년 전보다 정책에 대해서는 덜 분열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

제로 낙태나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당의 일반 조합원들은 비슷한 의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은 정책적 분열이 심하다고 믿는다. 지난 25년보다 심해진 정당 간 적대감과 함께 세 번째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은 여러 사안에 대해 덜 분열되었음에도 스스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시민이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혐오하는 경향을 보일 경우,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을 과장하고, 사상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반대편을 비난한다. 한 예로 공화당 내 가장 흔한 비방은 공화당 당원이 충분히 정당의 이념에 전념하지 않는 것

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당한다. 얼마전 대통령은 특정 민주당 하원의원이 “위험”하고 “미국을 싫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집단적 사고

양극화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정치적 적대관계에

상인 집단 극화에 있다.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만 이야기하거나 일치하는 견해의 뉴스만을 볼 경우, 개인의 믿음은 더 극단적으로 변한다. 사람이 더 급진적으로 변할 경우 반대편의 입장을 덜 이해하게 되고, 의견에 대한 반대를 더 목살하며, 불완전하고 부패한 반대자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의 홈게임 승리를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보았던 때를 떠올려 보라. 다른 지지자들과 합성을 지르며 사람들의 팀에 대한 열광은 급증한다. 동시에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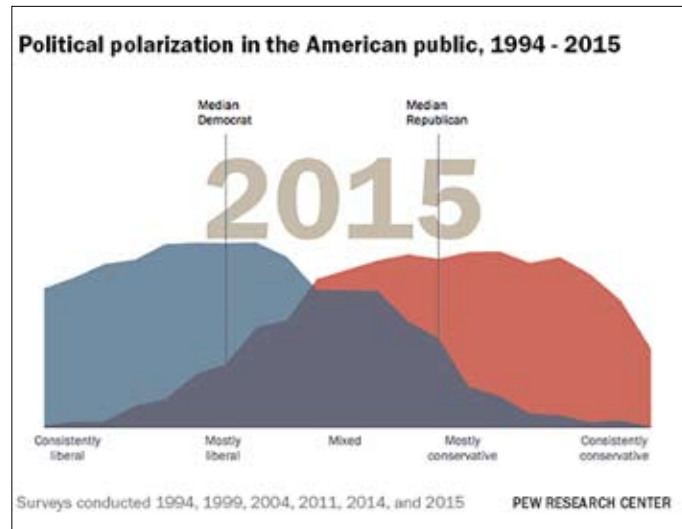
온라인 환경은 양극화를 양산하는 기계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정보 출처를 선택하고, 본인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친숙하지 않은 메시지를 걸러낸다. 개인이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 있다면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방과 치료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디어 습관을 다양화하는 것은 집단 극화를 막을 수 있어도 이미 존재하는 양극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2018년 실시된 소셜미디어 연구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에게 본인의 주장을 온건하게 반대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여줬다. 연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시작 전보다 더 당파적인 견해를 보여줬다. 이미 집단 극화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사람은 다른 의견에 대한 표현을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타인과 협력하며 극단적으로 변한다. 서로 지지하며 동질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같은 태도를 공유하며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당 공약과 임원 간 양극화를 만들어낸다.

결국 이를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정치적 소속을 집단 정체성으로 간주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을 승자독식의 데스매치에서 전쟁 중인 팀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양극화는 개인 정치성향이나 감정이 행동에 있는지 관련 미디어습관 다양화로 집단극화 막아도 양극화 못 되돌려

을 조종하는 단어인 “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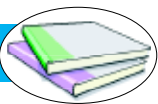
민주당 공천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 간 토론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관찰할 수 있다. 공천

있는 쪽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보다는 말이 쉽다.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을 왜 경멸할까?

대답은 널리 퍼진 인지적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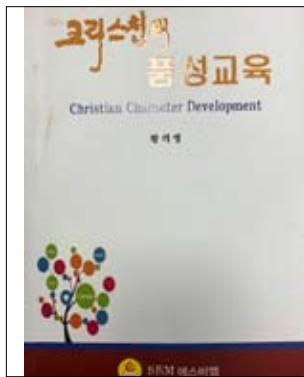
향과 그 팀을 지지하는 팬에 대한 반감은 강해진다. 당신의 기분은 좋아지고, 동질감은 강해진다. 동료 지지자와 함께 응원하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더 좋게 느낀다.

책 소개



“크리스천의 품성교육”

저자 황의영 목사



한걸음 더 나가 새로운 품성을 가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는 이 책은 201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두란노신학교 강의를 계기로 집필하게 됐다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문이기에 미비한 점이 있지만 핵심을 중

저야만 하는가? ③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핵심과제인가? ④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2부 문제의 본질이 해-⑤와 품성은 병들고 피해의 식이 많은가? ⑥사악해진 인간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제3부 문제의 진단과 분석-⑦와 쓴 뿌리들이 깊숙이 박혀 있는가? ⑧와 감정이 자꾸 더러워져서 응어리지는가? ⑨와 남을 폭력 지르는 가시가 있는가? ⑩와 나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같은가? 제4부 근본적인 처방-⑪어떤 요소들이 변화되어야만 하는가? ⑫온전해지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⑬어떻게 품성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제5부 변화의 열매-⑭품성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의 목차로 각 항목아래 6-10개의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황의영 목사는 50년전 한국 교회 최초로 “목회상담원리”(생명의말씀사)를 저술해 각 학교 교재로 매년 출판했으며 베스트셀러 “사모학”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1975년 LA 미주평안교회를 개척했으며 1968년부터 신학교 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1989년에는 SBM을 설립해 3대 목표인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제2의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내적치유에서 한걸음 더 나간 인성교육과 훈련

윤리의식은 더 부패해가고 있다.

저자 황의영 목사는 이 시대에 품성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그 어떤 교양과목보다 우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어린 심령들의 인성교육과 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또 상한 감정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내적 치유에서

합해서 기술했다고 머리말에서 밝혔다.

책은 제1부 동기와 전제-① 나는 왜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가? ②나는 누구며 왜 훌륭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카일 마이클슨 / 규장	나를 돌아보는 시간 김유비 / 규장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한홍 / 규장	행복예수 김형식 / Denstory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버(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